

# 한국 YWCA

2023년 5·6월호  
MAY · JUNE Vol.584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000-1922-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YWCA연합회

### 기획 정전 70년, 한반도 여성평화를 논하다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여성 평화통일이 가야할 방향은  
횡단·교차·십자가를 느끼게 하는 영화, <크로싱>

### 이슈포커스

기후위기와 재난: 그래도 희망은 있다

### 줄: 인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아내는 한일시민의 연대

###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망해가는 지구난파선 위 자본과 계급 <슬픔의 삼각형>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안동 054.854.5481
(사)거제 055.682.4950	(사)안산 031.483.6536
(사)고양 031.919.404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광명 02.895.1966	031.455.2700
(사)광양 061.762.0012	(사)양산 055.367.1144
(사)광주 062.609.1300	(사)여수 061.654.2161
(사)군산 063.462.4491	(사)울산 052.247.3520
(사)김해 055.332.6000	(사)원주 033.742.6090
(사)남양주 031.577.7762	(사)의정부 031.853.6332
(사)남원 063.632.7002	(사)익산 063.857.8910
(사)논산 041.736.7393	(사)인천 032.424.0524
(사)대구 053.652.0070	(사)전주 063.224.5501
(사)대전 042.254.3035	(사)제주 064.711.8322
(사)동해 033.531.3007	(사)제천 043.645.2580
(사)마산 055.246.8746	(사)진주 055.755.3463
(사)목포 061.242.1611	(사)진해 055.542.0020
(사)부산 051.441.222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천 032.668.9700	(사)천안 041.575.0961
(사)사천 055.833.2344	(사)청주 043.265.3700
(사)서귀포 064.762.1400	(사)춘천 033.254.4878
(사)서울 02.3705.6000	(사)충주 043.848.3240
(사)성남 031.708.2503	(사)통영 055.646.2547
(사)세종 044.865.2432	(사)파주 031.945.5998
(사)속초 033.635.3523	평택 031.651.7701
(사)수원 031.252.5111	(사)포항 054.274.4444
(사)순천 061.744.7990	(사)하남 031.793.7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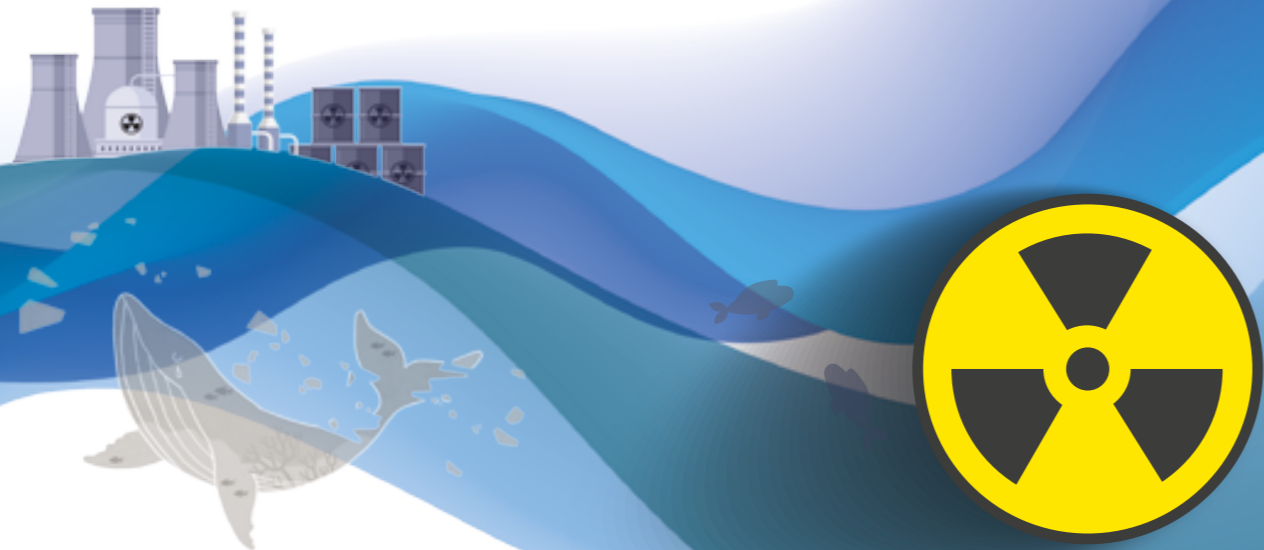


(사)한국YWCA연합회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막는 우리의 물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중! 생명체에 치명적인 핵종이 걸러지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바다와 살아가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모두의 바다, 오래오래 깨끗하도록 우리의 물결로 방사성 오염수 함께 막아요!



## 우리의 물결 잇기

1. 우리는 오염수를 막는 물결, 바다색 옷을 입어주세요!
2. W 모양으로 손을 뻗어 물결이 되어주세요!
3. 게시물로 업로드 후 해시태그로 SNS 물결을 이어주세요!



#SAFEWAVE

#YWCRAWAVE

#NO방사성오염수

## 2023.5·6 한국YWCA



### 표지이야기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인 5월 20일, 전국의 회원YWCA 회원들도 서울 중구 태평로에 결집했다.

### 2023년 7·8월 주요일정

- 7월 3일 월례아침기도회
- 7월 7일-10일 한일YWCA협의회
- 7월 12일 고 김필레 선생 40주기 추모예배
- 7월 22일 정전70년 한반도평화 공동행동
- 8월 15일-16일 2023 Y-틴 전국회원대회
- 8월 18일-19일 대학·청년YWCA 전국회원대회
- 8월 23일 2023 제1회 청년포럼
- 8월 22일-24일 제 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제59권 제3호 통권 584호

2023년 6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정소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청년! 청년성!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 | 박윤애
- 05 **월례기도회** 정의의 비 | 이현아
- 기획 | 정전70년, 한반도 여성평화를 논하다**
- 06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공존이 가능한가 | 조성렬
- 09 2023년 현재, 여성 평화통일이 가야할 방향은? | 편집실
- 11 횡단·교차·십자가를 느끼게 하는 영화, 크로싱 | 한미미
- 이슈 포커스 | 기후위기와 재난**
- 12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성평등×기후정책 아카데미 | 김은경
- 16 **탈핵** 노후원전 말고 안전한 도시, 안전한 대한민국 | 민은주
- 18 **소비자 운동** 소비기함과 탄소중립 | 안정희
- 20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 망해가는 지구난파선 위 자본과 계급 욕망의 대환장파티, <슬픔의 삼각형> | 이윤숙
- 22 **청년토크** 후쿠시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학·청년YWCA
- 24 **이달의 현장 ①** 윤석열 정부 1년, 여성가족부 평가 토론회 | 이한빛
- 26 **이달의 현장 ②** 2023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7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 편집실
- 28 **이달의 현장 ③**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 편집실
- 30 **이달의 현장 ④** 2023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 | 이수진
- 중·인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우리가 막아낸다**
- 32 인류 해양생태계 피해 아랑곳하지 않는 IAEA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거부되어야 한다 | 김혜정
- 35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 유에스터
- 38 **말씀묵상** 여성의 시선에서 본 평화 | 백소영
- 40 **에큐메니칼 선교 컨퍼런스** 동아시아의 페미니즘으로 | 이한빛
- 42 **성명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날 선언문
- 43 **기자회견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 44 **기자회견문**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문
- 45 **故 이명혜**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 46 **故 주선애**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 47 **연합회 소식**
- 54 **회원YWCA 소식**

## 청년! 청년성!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



**박윤애**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100년의 역사를 가진 YWCA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청년들이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자기 운동을 펼칠 기회를 갖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청년은 세상에서 경험이 아직 적기 때문에 어쩌면 무모한 시도로 보이는 것들도 시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장수하는 조직은 청년의 새로운 흐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직의 생명력이다.

최근 한동안 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단체의 30주년 행사에 갔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작년 초에 30대 협동사무처장이 선임되었는데, 이제는 활동가들과 회원들도 2,30대 청년들이 절반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레타 툰베리처럼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서 기후정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최근에 만난 한 후배가 자원봉사계에서 나의 멘토(해방동이, 1945년생)와 같은 분께서 청년성을 지닌 분이라고 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10년 전쯤 유명인과 함께 모금행사를 하면서 그 유명인의 외모가 잘 생겼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분이 답글에 '외모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지금은 외모에 대해 언급 안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10년 전이라니. 이 분은 30여 년 전 자원봉사를 한국에 펼치며 자원봉사가 남을 돕는 일뿐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며, 좋은 시민이 되게 하는 시민교육임을 알리셨던 분이다. 이 분야 전문가와 리더를 키우며 활동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셨던 개척자이면서 개혁가였다.

최근 코로나 이후 침체된 자원봉사단체의 멘토링을 위한 준비 모임을 하면서 5,60대 어머니 선배그룹과 2,30대 청년

그룹이 함께 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 양복을 입고 온 청년 한 분이 면접을 볼 때마다 엄청 떨리고 압박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움츠러든다고 했다. 50대 자원봉사 리더분도 지역의 환경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정책지원단에 지원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진 후 얻은 결론이 압박 질문 들어올 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주어야 함을 얘기했다. 조직에 자신을 맞추려고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문제해결 능력과 팀워크, 리더십 등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압박 질문을 돌려받는 것이 좋겠다는 등 여러 도움말을 주셨다.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 청년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많은 고민이 대화 중에 해소됐다고 했다. 원래 이 두 그룹은 따로따로 3차례씩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청년단장은 멘토링을 그룹별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5,60대 선배 그룹과 같이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YWCA에 청년회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회 생태계 이슈를 YWCA에서 운동으로 풀어나가도록 향후 5년~10년간 청년 활동가들과 청년 회원들이 좀더 주도할 기회를 갖도록 노력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청년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 준다고 어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을 구할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성의 본질은 새 흐름을 만드는 것, 개혁성이다. 청년의 아이디어나 개혁성을 존중하지만, 청년성을 가진 어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서로 보완하며 세대 간에 조화 속에 조직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과 꿈을 그려보실 것인가? 

## 정의의 비

호세아 10:12



**이현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모든 위기는 결국 '정의'의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위기의 발생 원인과 책임 주체를 묻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는 없는지, 위기 극복을 향한 방법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야 하기에 정의는 곧 정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기후위기 역시 우리에게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게 합니다. 지구 위 온실가스의 약 70%가 세계 인구의 20% 이하에 불과한 선진산업국들에 의해 배출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후불평등은 국가 간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크기와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 대처할 힘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각종 사회, 정치, 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 청소년과 어린이, 농어민과 노동자,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과 소수자가 더 큰 생존의 위협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후불평등,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본질입니다.

호세아서는 가나안의 다산(多産)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산의 신은 풍요와 번영, 무한한 자기확장이라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광야 경험을 통해 익혔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삶을 버리고 풍요와 욕망을 향한 삶을 쫓아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나 주를 찾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정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 주겠다"고 요청하시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생명을 버리고 성장과 풍요, 소유와 소비, 물질의 가치에 갇혀버린 우리에게도 무겁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엔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성서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던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비심', '친절함', '관대함' 등을 포함한 포괄적 단어입니다. 실제 구약이나 신약 성서의 본문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시고, 이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빠진 시대를 향해 불의한 사람, 악한 시대로 꾸짖으시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 긍휼, 사랑에 기반한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비처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비는 결국 더 움푹 파인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고, 그곳에 더 많이 머물게 됩니다.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정의 역시 골고루 임하시지만, 결국 더 낮고 약한 곳을 향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라는 가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잠시 풍요로움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의 토대가 무너지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리던 길에서 멈춰 돌아서는 일을 배워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성장과 풍요, 소유와 편리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그간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연을 비롯한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의는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약자들과 사회의 안전 그물망에서 빠져나간 이들을 돌보는 사랑이 곧 이 시대의 정의입니다. 지난 100여년을 여성의 인권, 평등, 자유, 해방을 위해 일했던 한국 YWCA가 이제 여성 당사자들을 포함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더 힘있는 정의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공존이 가능한가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오사카 총영사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새로 부상한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 미국은 서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전략을 추진했다. 서유럽에서 마셜플랜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한 데 이어, 동아시아에서는 우선 일본의 산업을 재건한 뒤에 공업화된 일본의 경제원조를 통해 한국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일 두 나라가 극동지역의 강력한 반공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전략은 194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긴 했으나 부진하다가 미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958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1960년 미·일 안보조약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로 65년 체제라는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한·일 국교정상화로 경제협력은 활발해졌으나, 한국의 과거사문제 제기과 일본의 일국평화주의로 한·일 안보협력은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굴기(崛起)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통된 위협 인식을 갖게 되면서부터다.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중국몽(China Dream)을 내걸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뒤 중국은 제19차 당대회의 '신형국제관계', 제20차 당대회에서 '공동부유, 인류운명공동체'를 내걸며 세계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역시 한·미·일 군사협력의 배경이 되었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절대로 핵무기 선

제사용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2020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는 '탐용하지 않고 절대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탐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내뉘었다. 마침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며 공세적인 핵전략을 공개적으로 채택했다.

한·일 두 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 인권 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의 집단방위체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에만 매진하며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군사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위협인식까지 공유하게 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론이 재점화되었다.

##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전과 대응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던 유엔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직접위협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일본의 재무장 등 주변국들의 잠재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직접적 위협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공세적인 핵전략을 들 수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모든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기존에 합의했던 4.27판문점 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같은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우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구단선(九段線) 내의 영해화 및 도련(島連) 전략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역의 내해화 등 해상교통로 제약 시도와 대만 무력통일 추진 시사 등이 한반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일본도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 증가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고권 부인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요인들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높여 제반 위협요인들에 대처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 안보상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

에서 국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외전략을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들어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회를 잡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사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대안으로 불충분했다. 특히 굴기하는 중국의 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대비가 부족했으며,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 윤석열 정부, 가치 기반 진영외교 강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정비보다 가치에 기반한 진영외교를 강조하며 중국 리스크의 대비에 방점을 두었다. 굴기하는 중국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대화보다는 한·미 연합훈련 활성화와 「위싱턴선언」의 채택 등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아직 윤석열 정부는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초당파적으로 추진해 온 유라시아(북방)전략을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굴기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굴기하는 중국의 장기적 리스크는 올바로 봤으나, 경제협력이나 북핵문제 해결과 같이 단중기적인 협력 요인을 간과했다. 또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관리 및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마디로 가치를 좇다 국익을 놓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선택:**

**한미동맹 위의 실사구시 외교와 남북대화**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굴기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봉합하려고 시도하였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 역시 너무도 분명하다.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내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에 봉합됐지만 일본 대잠 PC-3 초계기의 위협 비행 사건과 해상자위대의 육일기 계양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선부른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재무장에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도 전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대외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대안은 다름 아닌 한미동맹에 기초하되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다. 집단안보체제인 유엔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국제정치에서 힘의 논리가 판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전랑(戰狼)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정세에서 대북 전쟁억제력을 제공받고 중국의 지역패권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필요불가결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한국을 국제분쟁에 끌어들이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력침공과 영토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 중국·러시아 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 회색지대 갈등이나 미국이 한국영토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독도에 대한 일본 침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하면서도 우리 국익에 기초한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나라와의 관계에서 가치를 내세워 편 가르기, 줄 세우기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지향의 진영외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외교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서는 국익에 기초한 실사구시 외교가 필요하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하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에 의존하는 대북 압박만으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빈번한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과 외교 공조는 북한 위협에 대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내용일 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방해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만 높여줄 뿐이다. 또한 미·러 대립 격화와 미·중 전략경쟁과 맞물리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에 불리한 국제환경을 만들어낼 뿐이다.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4세기 로마시대의 격언을 굳이곧대로 받아들여 미국의 확장억제나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현 안보위기는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대량우징보복 능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으며,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과 국민들의 지지, 초당파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국지도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에 매몰된 대외전략을 재검토하고 초당파적 협력을 복원해 현 안보위기를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한반도 여성 평화행동, 그때와 지금

**1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는 6월 20일(화) ‘정전70년 한반도여성평화를 논하다’를 개최했다. 한국 YWCA는 1980년대 초반부터 ‘탈북민 지원과 북한 비로알기 운동’을 비롯해 북한 대기근 당시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여성평화 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등 40여 년 동안 평화통일운동을 지속해왔다.

‘정전70년 한반도여성평화를 논하다’는 한국YWCA가 지속한 평화통일 운동의 방향을 2023년 현재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1부 여성평화포럼과 2부 영화 크로싱즈(Crossings) 상영으로 이어졌다. 포럼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현 국내의 정세에 대해 살펴보고, 2015년 위민크로스디엠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함으로써 여성평화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평화포럼은 오후 1시 30분 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열

렸으며, 영화 상영은 본 회관 1층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공존이 가능한가”**

여성평화포럼 ‘정전70년 한반도여성평화를 논하다’는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의 사회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가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공존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윤보영(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강사와 고유경 (WILPF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컨설턴트가 토론자로 나섰다.

기조발제에서 조성렬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중국의 패권 도전 ▲일본의 본격재무장 계획 발표 등을 꼽았다. 조성렬 교수는 “핵개발 중인 국가들이 핵개발 여부에 대해



왼쪽으로부터 사회를 맡은 이은영 연합회 제2부회장, 발제자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토론자인 윤보영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강사와 고유경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컨설턴트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확실히 핵개발을 하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다”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하에 핵미사일 전력에 집중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전술핵탄 두 화산31형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또한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에서 드러나듯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천명 아래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제약 ▲대만 무력 통일 추진 시사 ▲한반도 주변해역의 내해화를 추진 중이다. 조성렬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갈등, 일본 재무장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성렬 교수는 계속해서 “외교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하면서도 우리 국익에 기초한 실사구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과 국민들의 지지, 초당파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보영 박사는 “한반도 상황과 여성주의적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보영 박사는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이 한반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히면서 “군사력에 방점을 두고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국가, 안전보장 보다 ‘생명’과 ‘삶’, ‘인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인간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안보의 논의는 개인이 자신의 생존, 존엄 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창조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인간안보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보영 박사는 ‘남북관계 갈등의 심화’와 ‘북한을 극단적으로 적대화해 전쟁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조장하여 생성되는 공포심’이 한국의 청년세대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북한 여성의 안부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고유경 컨설턴트는 “평화협정과 국제시민사회 평화행동”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고유경 컨설턴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으로서 국제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

해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 회복과 화해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 중에 여성의 참여와 포용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관한 일례로 국내외 시민사회 인사들의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의 내용을 담은 영화 ‘크로싱(Crossings)’이 미국 방송 PBS에서 일주일동안 방영된 점을 소개했다.

### 다양성 존중이 평화의 시작

2시간 가량 이어진 포럼이 종료되고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2부 행사인 영화 크로싱즈 상영이 진행됐다. 영화 크로싱즈는 한국YWCA가 주최 단체로 함께한 2015년 WDC 국제여성평화걷기대회의 남·북한 여성들과 국제여성들의 연대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메어리드 맥과이어, 리마 보위 등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글로리아 스타이넵, 크리스틴 안 등 저명한 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에서 남으로 DMZ를 건너는 횡단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 YWCA는 1천개 조각을 엮어 여성평화운동의 상징인 대형조각보를 만들었다.

영화 상영 후 한미미(세계YWCA) 부회장의 사회로 이야기 마당이 진행됐다. 유은옥 (2015 WCD 여성시민합창단 지휘자), 차경애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진서 (서울YWCA 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리더가 함께했다. 김진서 피스톡톡 리더는 “이 영화는 전례가 없다면 전례를 만들자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한국YWCA에 여성들이 모여 만든 전례다.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라도 그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은옥 2015 WCD 여성시민합창단 지휘자는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12개 나라 여성평화 운동가들이 우리의 분단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DMZ를 넘어왔다”며 “이제는 분단의 당사자들인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 앞장서 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차경애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영화에는 국제여성평화 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여성들과 만나는 전 과정을 아름답게 담고 있다”며 청년들도 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 횡단·교차·십자가를 느끼게 하는 영화, 크로싱즈

###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사)서울YWCA 이사

이 영화는 제목 ‘크로싱즈(Crossings)’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횡단’ ‘교차’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횡단의 의미를 넘어 남한과 북한, 국제 여성들과의 만남으로 인한 교차성 확대와 확장, 더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를 통한 평화의 의미까지, 많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15개국 30여 명의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본인의 명성과 안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크로싱’에 나선 대담한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크로싱’ 과정에서 이들이 서로의 다양성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5천년 넘게 한민족으로 살아온 남한과 북한이 70여 년 동안 만날 수조차 없는 분단 상황에 놓인 현실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합니다. 미안마, 수단,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 수많은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권주의, 또 다른 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력에 의해 합리화 혹은 정당화하는 평화가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여성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평화가 아닌 사랑으로 대응하는 비폭력운동(Nonviolence Movement)만이 진정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들이 말하는 평화 아니 여성들이 외치는 평화, 더 나아가 여성들이 만들어 가는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인 소극적 의미가 아닌 환경, 경제, 복지, 교육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 주춧돌, 그리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제 여성들이 함께 손잡고 한반도를 ‘크로싱’하는 스토리를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성평등 x 기후정책 아카데미<sup>1)</sup>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성차별적이다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왜 기후위기는 여성에게 더 절망적인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낮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 임금 격차, 제한적인 자원 접근성 등 사회 속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 즉 성차로 인한 여성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성불평등은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후대응정책들 gender-blind climate solutions 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한마디로 기후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은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 성불평등

경제적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계의 연령 25-34세 여성들이 극심한 가난한 생활을 할 확률은 남성 보다 25% 더 높다.</li> <li>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0% 적은 임금을 받는다.</li> <li>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배의 시간을 무임금 노동, 돌봄 노동에 사용하며, 이로 인해 정규 노동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다.</li> </ul>
교육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계의 비문해 인구 중 2/3이 여성이다.</li> <li>전세계적으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여아 88%, 남아 91%이다.</li> <li>전세계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고등교육에 등록된 학생 중 여성은 35%이다.</li> </ul>
정치적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50여년 간 전세계 국가 중 47% 만이 여성 국가 리더를 보유하고, 장관 중 21%만이 여성이었다. 내각의 여성 비율 50%를 달성한 국가는 14개국 뿐이다.</li> <li>201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컨퍼런스 (UNFCCC) 회기간 회의의 국가 대표 중 35%, 2017 당사국총회 (COP)의 26%만이 여성이었다.</li> </ul>
여성에 대한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계 여성 중 31%가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 신체적 그리고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li> <li>다양한 성별 격차에 기반한 힘의 차이는 여성을 다양한 폭력에 노출시킨다.</li> </ul>

하지만 역으로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더욱 민감한 여성들이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성과 소녀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위기 극복의 주체이자 변화를 이끄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이다.

“여성들은 생물학적·생리학적 특성과 한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와 차별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취약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양성평등적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재난으로 인한 기존 질서의 붕괴와 복구 과정에서의 자원의 유입은 해당 사회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소외 및 취약 계층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외 및 취약계층 중 특히 주목되는 대상은 바로 여성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립 및 이행 시,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정과 공동체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지적 기후행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 자연자원관리, 재난 복구 등 기후 관련 분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파리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조치를 취할 때 성평등, 여성의 권한부여, 세대 간의 평등을 고려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ii)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시키며, iii) 여성에 대한 개발·환경 정책의 영향평가 체계를 강화·수립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던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도 북경선언의 환경 전략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후행동의 성주류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성이 주도하는 기후행동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례



필리핀 여성 주도 해변 산호 복원 프로그램



재난위험 감소계획을 위한 베트남 여성 역량강화 교육

2001년 모로코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해 설립된 사무국, 메커니즘, 위원회 등 산하 조직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도입 과정에 여성의 참여 및 대표성 강화를 권고하였고, 2010년 칸쿤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여성과 원주민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주목할 것을 장려했다. 2012년 도하 제18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e) 접근에서 성-반응적인(gender-responsive) 접근으로 전환하여 성차에 대한 규범·인식·선입견을 분석,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사국들은 사무국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설립된 구성기구 및 당사국 대표단의 젠더별 구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매년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2014년 리마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젠더에 관한 리마프로그램(Lima Work Programme on Gender [LWPG])을 채택, 여성의 대표성 강화기반에서 성-반응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을 포함한 모든 UNFCCC 절차에 성주류화를 위한 역량배양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2015년 파리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실을 보게 되는데 국가주도적이고 성평등적 기후위기재난대응 정책 수립을 명문화하기에 이른다. 이어 2016년 모로코 제22차 당사국총회 이후 리마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강화, 연장하고, 그간 UNFCCC 총회에서 합의된 젠더 관련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평등주력프로그램 (GAP, Gender Action Plan)을 수립할 것을 이행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에 요청하였고, 2017년 본 제23차 당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여성의 주도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물인 '북경선언·행동강령' 환경 분야에 서 i)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

1) 1강. 성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이보배 세계식량기구 케냐국가사무소 기후적응 정책사무관) 2강. 한국의 성평등한 기후정책을 위한 과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의 강의자료/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정은하, 자연재난과 젠더.개도국 양성평등제도가가능성과 한국의 성인지적 재난관리정책을 위한 시사점 여성연구. 2015.

국총회에서 성평등주력프로그램 채택, 그리고 2020년 당사국들은 성평등주력프로그램 LWPG/GAP을 시작해 보다 강화된 성반응적 기후행동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성평등주력프로그램(GAP) 채택에 따라 UNFCCC 당사국들과 UNFCCC 산하 구성기구(constituted bodies)는 성주류화를 추진해야 한다. UNFCCC 하에서 성주류화는 UNFCCC 사무국 및 책임 담당자간 긴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성평등주력프로그램을 수립한 이행부속기구의 검토·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성평등 주력 프로그램(GAP) : 5대 중점 분야

1. 역량 강화, 지식 관리 및 홍보·소통
2. 성별 균형, 참여와, 여성 리더십
3. 성평등 관련 의무 및 활동이 일관된 이행
4. 성반응적 이행 및 이행수단
5. 평가 및 보고

국가별 젠더기후변화 연락담당자 NGCCFPs 의 역할<sup>3)</sup>

- 당사국 대표단의 젠더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 개발
- 기후재정과 젠더 이슈를 대변하는 당사국 대표단 내 연락 담당
- 젠더와 기후변화이슈 그리고 기타 주제 안에서의 젠더에 관한 당사국 대표단 입장 조율
- 기후변화와 젠더, 유엔기후변화협약과의 원활한 연결 등 관련 부처간 기후계획 조율과 협력
- WEDO, UN Women, IUCN 등이 주최하는 연대와 역량개발 기회 참여
- 관련 행사, 교육 등 소통 담당
- NDCs, NAPs, 국가적인 소통 등 성반응적 기후계획과 소통에 관한 과정 점검 및 인식제고
-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제시한 성별균형에 대한 대표단의 목표 진행 과정 점검
- 당사국 대표단 구성/임명의 성별균형 주창

LWPG / GAP 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성주류화의 핵심 과정이며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담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NC]),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등 국가계획에 성별요소 관련 역량강화 방침과 국가별젠더기후변화연락담당자(NGCCFPs)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 국가별 정책방향과 상호 정합성을 이루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엔이 열거한 NGCCFPs의 역할을 확인한 결과, 당사국의 성주류화전략이 이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정부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NGCCFPs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으며, 열거한 담당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걸쳐 관련 전략을 수립해 왔지만, 젠더 관점을 반영하지는 않은 상태이다.<sup>4)</sup>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성평등에 관한 언급 또한 찾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난관리정책이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며, 실제적 젠더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며, 부처별 재난안전 업무에 있어서 여성 가족부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해 구호법에 명시된 이재민 수용과 구호물품 배분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 안전 대비 대응정책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성별분리통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재난관리정책에 있어서의 성주류화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 취약자에 대한 개념 정의 등 법적 지위 강화,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생성·구축, 여성의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한다.<sup>5)</sup>

희망을 갖기 위한 '지금, 모두의 행동'


기후위기에 처한 인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기후 위기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 '답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현실은 답이 없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반면, 문제는 답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따른다.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변화를 주도하는 행동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엔아태 지역사무소 하마드 나시리(HAMMAD NACIRI)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기후 행동이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 성, 연령, 장애, 인종을 넘어 모든 인류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책 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여성의 참여 없는 기후변화 행동은 그게 무엇이든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성평등 관점 기후 행동  
GENDER-TRANSFORMATIVE CLIMATE ACTION © Bobae Lee

-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여성지도자, 청년 역량 강화
- 정책전문가, 정부관계자 역량강화 성평등적 기후 정책 수립 지원
- 성별, 연령, 장애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분석, 통계청 역량 강화
- 범정부·지역·국제 사회 성평등적 기후 협약 및 구조 마련
- 성평등적 기후행동 홍보, 국제행사 주최/참여
- 성평등적 기후행동 재원 마련 및 역량 강화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다. 이제 나는, 너는, 우리는 오늘부터 기후위기 적응, 감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저탄소 공정을 통한 생산과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젠더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2022년 12월 개소한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 연락해서 '기후행동과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젠더와 여성'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고,<sup>6)</sup> 외국어로 된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 편집하여 주변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으며, 특히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회원YWCA별 관련 사례들을 수집, 정리할 수도 있고,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위기대응정책들을 요구하고 평가하는 일도 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1조 목적)이다. 이 목적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정당한 전환을 원칙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3조 기본원칙)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 지방정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대로(15조 5항) 구성되었는지, 기후위기 대응기금은 설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 지역을 탄소중립도시로 만드는 일(29조)도 제안해 볼 수 있다. 아무튼 국민인 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5조 3항) 희망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시작의 중심에는 반드시 여성인 내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을 조직화하는 강력한 시민사회 조직도 있어서는 안 된다. 

3)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NGCCFP\\_WebinarPPT\\_English.pdf](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NGCCFP_WebinarPPT_English.pdf)  
(Capacity-Building and Training Needs for National Gender and Climate Change Focal Points WEBINAR, 5 November 2018)  
4) 이계영, 오재은,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 프로세스 상 젠더주류화전략 연구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후기술과 젠더주류화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20, Vol. 11, No. 5-2, pp. 455~479.  
5) 김동식, 재난과 기후변화 대책 속에서 여성들은 안전한가. 여세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7년 제4호. pp.22-32.  
6) <https://www.unclearn.org/courses/open-online-course-on-gender-and-environment>

# 노후원전 말고 안전한 도시, 안전한 대한민국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들어가며

지난 6월 18일 서울의 광화문 거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됐다. 2008년 한 차례 수명연장을 시도한 이후, 다시 10년을 추가로 연장을 시도하던 중 전 국민의 저지로 폐로 되었던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결정적이었다. 미국 쓰리마일섬과 구 소련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또한 예기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부산시민들과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은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노후원전 폐쇄를 외쳤고, '잘 가라 고리 1호기'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원전 말고 안전'을 다 함께 부르짖었다. 이후 국회의원 면담 및 산업통상부 규탄, 감사청구, 시청 농성 등을 통해 영구적인 폐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의 경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뒤로한 채, 또다시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산시는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수용성이 전제된다면 수명연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을 대표해야 할 부산시의회는 뒷짐만 진 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만 응원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

운데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에 이어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원전 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임기 내 18기의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인 임시핵폐기장 건설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SMR 추진 등 핵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부인회 및 노인회, 먹거리 운동단체 등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이 모여 1월 14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에 지역 풀뿌리 단체 및 동문회, 등산모임 등 소규모 활동도 임까지 더해져 2월 21일에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부산고리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3월 11일 후쿠시마 11주기를 맞이해 전국의 탈핵·에너지전환·시민운동단체들이 부산의 송상현 광장에 모여 '노후원전 폐쇄, 핵폐기장반대'를 외치며 서면거리까지 행진하면서 부산시민들에게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홍보해 나가기도 했다.

## 탈핵, 탈원전 운동에 대한 방향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근 경주에도 중수형인 월성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삼중수소 누출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며, 많은 양의 핵폐기물 발생으로 불법적인 맥스터 증설이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장기적으로 빈번하게 비계획적으로 발생했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핵발전 운영은 안전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때문에 핵쓰레기를 계속 만들고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더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위험한 핵폐기물을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댄질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민의 안전'은 빠져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동해안 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지진보고서에 따르면, 경상권에는 16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있고, 추가적인 기초조사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미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 정부와 한수원의 영터리 환경영향평가 및 수명연장 심사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마디로 말해 영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는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대사고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NUREG 0555와 1555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SRP0800의 15장과 19장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으며 지진 취약도 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에 RG17과 지진 위험도 평가의 RG1206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쓰리마일 및 체르노빌의 추가요건 40~60가지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대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화재위험도 등 안전성지분석 및 증기발생기 세관과파단사고, 소외전원상실 및 small LOCA 분석 평가 등은 필수적이나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영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시대의 핵발전소 폐쇄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성난 지구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매립하여 건설하였던 고층 아파트는 1-2층까지 잠기기 일쑤이고, 핵발전소의 방벽은 해일을 예방하지 못하여 비상 디젤 발전기는 자주 정전되거나 가동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삼시간에 불어오는 해안 침수와 강풍 그리고 해일은 이제 전문가들도 대비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800만 주민들은 불어 닥치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유래 없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은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나가면서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것이다. 

# 소비기한과 탄소중립

## |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먹어도 될까?

식품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다.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식품 섭취는 거의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4%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보관하거나 제조, 조리에서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 정책도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일상에서 소비자들이 개별 식품 소비기한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식품 섭취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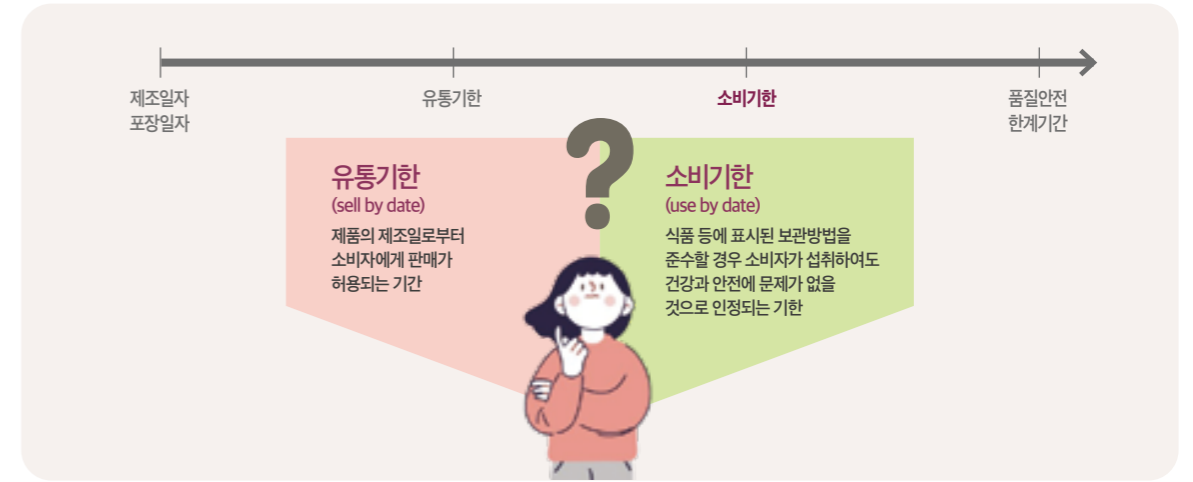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의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유통 가능 기한과 섭취 가능 기한의 차이인 것이다. 소비기한은 해당 제품의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에서 보관 식품질이나 부패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60~70%, 소비기한은 80~90% 수준으로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더 길다. 식약처가 올 초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 가공유는 16일에서 24일 8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늘어났다. 과자의 경우는 36일

로 늘어난 반면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동일한 품목(즉석조리식품)도 있다.

### 소비기한과 탄소중립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한다. 이 중 24%는 음식쓰레기가 원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1만5천만 톤이 넘는다. 한국인 1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0.28kg,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은 100kg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연간 1조원대에 이른다. 2019년 한국에서만 매일 약 1만4천314톤의 음식물이 버려졌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8백85만 톤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했을 경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식품 폐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소비자는 8천8백60억원, 산업체는 2백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연간 1조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으며, 폐기하게 되는 양이 줄어들면서 10년간 약 7조5천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 호주, 일본, 영국 등 OECD 37개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은 대부분은 소비기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영국과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유통기한을 식품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우리나라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통한 탄소중립 실현하고자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2021



년 국회에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사라지게 되었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실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에게 언제까지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소비기한 정착을 위한 과제

소비기한 제도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하게 정착되기 위한 과제는 남아 있다. 소비기한 표시는 2024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기존 유통기한 포장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시행 이전에 표시된 유통기한 표시제품 또한 해당 날짜 만료일까지 유통·판매되므로 향후 몇 년간은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어 지다보니 자칫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안전과 식품의 부패·변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체와의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에서는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정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기한제도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 유통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관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게 된다. 유통기한이 판매자들이 신경 써야 하는 날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이 지켜야 하는 날짜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소비기한이 식품 폐기 혹은 섭취시점을 결정하는 정보이므로 날짜와 식품 보관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기한이 짧은 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업마케팅에 현혹되어 대량구매 하거나 기한 내 소비가 힘든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하는 소비습관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 연합회 전 회장님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소비기한 제도가 환경적으로나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불필요한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더욱 안전한 식품 유통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제도가 정착되어 도입의 목적이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망해가는 지구난파선 위 자본과 계급, 욕망의 대환장파티, <슬픔의 삼각형>

##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연구위원

### 역설적 풍자의 슬픈 삼각형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를 을 제치고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이 영화의 제목만을 언뜻 보면, 애절한 사랑과 애수가 가득 찬 멜로영화일 것만 같다. 이루어지진 못한 사랑, 어긋날 수밖에 없는 삼각관계의 아픈 사랑이 펼쳐지는...

하지만 이 영화는 타이틀이 불러일으키는 낭만적 상상력을 가차없이 부서뜨린다. 모델들의 런어웨이 장소와 초호화 크루즈, 그리고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외딴 섬 등, 세 개의 장소에서 감독이 빚어낸 이야기는 역겹고 추악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렇지만 너무나 리얼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을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풍자한다.

15도 상승이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은 이 절박한 기후위기 현실, 대규모 인명 살상과 생태계 파괴를 서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불안에 떠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 영화는 영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구도 장면과 동물들, 어처구니없는 초상위 부자계급의 갑질과 난파 후 지배구조가 역전될 뿐 변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인간 욕망 등을 촘촘하게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결국 지독한 절망과 체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어찌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결국 다 망하고 죽는 거야?

그렇다면 너무 적나라하고 노골적이어서 절망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 영화가 말하려는 게 정말 비판 혹은 염세주의일까? 하지만 이 영화의 신랄한 풍자는 사실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 듯 보인다.

###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적나라한 민낯

여자 주인공 아야와 남자 주인공 칼은 패션업계의 모델이다. 제1부는 이들이 일하는 패션업계의 현장을 보여준다. 육체가 자본인 이 세계에서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패션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VIP 좌석부터 차별적으로 구성된 패션쇼에서 감독의 말 한 마디에 모델들은 시시각각 부상하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인공 아야가 선 런어웨이 벽면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다. 루벤감독은 또 명품 발렌시아 옷을 선전할 때는 우월하고 도도한 표정을 짓도록 하면서, H&M 선전 시에는 선량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패션업계의 적나라한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한다. 명품을 두르고 사는 우월하고 도도한 우리들과, 기후위기가 걱정하는 선량한 너희들은 달라! 이 선명한 계급적 메시지와 함께 긴장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패션모델의 미간에 형성되는 ‘슬픔의 삼각형’을 펴라고 주문한다.

1부 패션업계에서 보여준 계급사회의 모습은, 제2부 호화 크루즈의 인간군상을 통해 더욱 역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펼쳐진다. 어찌다가 협찬을 통해 상위 0.1% 부자들이 승선하는 초호화 크루즈를 타게 된 두 주인공은 그 속에서 이 슈퍼리치들의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들과 한편으로는 이들에



게 철저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크루즈 직원들의 무력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일하는 승무원에게 평등을 내세우며 강제적으로 수영을 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응징하는 부자, 사실 수류탄과 지뢰를 팔아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자신들은 전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이라 태연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본가, 역설적이게도 비료를 팔아 부자가 된 러시아의 자본가와 자기 방에 인터내셔널가를 늘상 틀어놓고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국인 선장, 그리고 이 선장에서 밤낮없이 펼쳐지는 샴페인과 캐비어와 송로버섯이 넘쳐나는 호화스런 파티 등, 화면에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탐욕스런 이들의 선상생활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들의 이 호화파티는 기상악화로 인한 크루즈의 좌초 위기 속에서 끔찍하게 더러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기울어진 배 속에서 이윽고 이들의 게걸스럽게 먹어댄 음식물의 역겨운 구도가 시작되고, 화장실 배설물들이 역류하여 선실을 뚝뚝 떠다닌다. 난파되어 가는 배에서 이들의

탐욕 대잔치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이들을 집어삼킨다.

### 절망과 염세 이면의 성찰

제3부는 결국 좌초한 배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인도에 도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서 새로운 계급의 전복 상황을 보여준다. 두 남녀주인공과 러시아 부자 등 몇몇 승객과, 크루즈 서비스 매니저와 선실 청소를 담당하던 아시아계 여성 아버제일 등 여덟 명이 살아남았지만, 크루즈의 계급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부자들은 초고가 롤렉스시계나 보석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게 된 반면 당장 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능력을 가진 청소부 아버제일은 새로운 '선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음식과 잠잘 곳을 미끼로 남자주인공 칼에게 밤마다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새로운 지배자가 된다. 이쯤에서 여성이 차지한 새로운 권력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관객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단지 지배자가 역전되었을 뿐 권력에 대한 욕망과 쟁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씩씩함과 냉소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씩씩한 감정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사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무인도에서 도시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아야를 죽이려고 뒤로 다가가는 아버제일을 등지고 아야가 말한다. “당신은 앞으로 내 비서를 하면 되겠다”.

사실 무인도에 있을 리 없는 도시로 가는 엘리베이터 환상 속에 아야의 이 말은 탐욕적인 자본주의 속에서 계급적 차별의식과 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의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씩씩하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영화는 망해가는 지금 이 세계에 대한 냉소적 비판으로만 읽기는 어렵다. 결국 이 영화가 말하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가장 많은 자원을 쓰며 호화롭고 안락한 삶을 즐기는 자본주의 상위계급과 그들의 삶을 이상적 삶으로 동경하며 사는 이들의 욕망과 그 파국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 지금과 같은 무자비한 성장주의와 탐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열망하는 사회계급의식과 구조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반성 아닐까? 🌱

# 후쿠시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 대학·청년YWCA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계속되는 피해와 문제들. 2023년, 우리 앞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일본은 도쿄전력에서는 다 검사하지 않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 7월부터 30년간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탈핵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YWCA는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YWCA활동가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YWCA 긴급 행동'을 펼치는 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1년부터 YWCA와 함께 탈핵운동을 함께 해 온 청년들과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오염수 방류라니?

**바다** : 잇을만 하면 나오는 원전 문제. 이번에는 도쿄전력에 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다면?

**파도** : 산 넘어 산이야. 사람들 관심이 줄어들면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것 같아.

**산들** : 일본에서 올해부터 2051년까지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쟁쟁** : 일본에는 지금 1000개의 저장탱크에 오염수 130여 만 톤을 보관하고 있어.

**파도** :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산들** : 그건 아니야. 여러방법이 있긴 있어. 가열해서 대기 중에 방출하기, 수소로 만들어서 대기 중에 방출하기, 땅속에 주입하기, 시멘트에 섞어 매장하기, 저장 탱크에 장기 보관하기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에 방출하는 방법을 선택한거지.

**파도** : 결국 돈 때문에 해양방출을 결정한 거네.

**바다** : 맞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비용이 40년간 35-90조 엔이래. 해양방출을 하면 엄청 삭감된다고 하더라고.

**산들** :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정화가 충분히 다 됐다고 말해.

**쟁쟁** : 정화가 충분히 됐으면 일본내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되겠네. 왜 방류한다는 거야?

**바다** : 방류하는 걸 주변국가인 한국, 중국, 러시아와 협의한 것도 아니야.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선포했어.

**파도** : 우리 정부도 문제야.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우리 정부는 애매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쟁쟁** : 지금 정부가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일본으로 보내진 시찰단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다던데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아.

**파도** : 정부가 원자력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문제야.

###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

**바다** : 탈원전 운동할때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이었잖아. 오염수 방류는 어떨까?

**쟁쟁** : 이번에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을 했는데 국민의 85.4%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어.

**파도** : 정부의 반응이 더 불안해.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10L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하질 않나,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능이 더 위험하다고 하질 않나. 정부에서도 이러니 누굴 믿어야 되나 싶어.

**바다** : 설사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해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오염수 방류를 오히려 좋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산들** : 문제는 미국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찬성한다는 거야. 지금 원자력기구 분담금 10%를 일본이 내고 있어서 영향력을 크게 차지 한다고 하더라고.

**쟁쟁** : 미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오염수 방류에는 찬성했다고? 진짜 내로남불이다.

**바다** : 홍콩도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거라고 했대.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역한다고 해.

**산들** :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격하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대.

**쟁쟁** : 여러기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4-5년 뒤면 제주도 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하고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된다고 해.

**산들** : 이제 바다수영도 못하고, 수산물도 못먹고, 바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겠어.

**파도** : 그뻘이겠어? 조만간 온 지구가 오염되고 말거야.

###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떤문제가 발생해?

**산들** :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겠지.

**바다** : 수산물 소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수산물이 원재료가 되는 식품도 원가가 오를거지.

**쟁쟁** : 바다 관광지 역시 타격을 받을거야. 근처에 사는 사람이 떠나는건 물론이고 관광객이 안오니깐 관광산업도 무너지겠지.

**파도** : 지구의 70%가 바다야. 이 바다가 오염수로 오염된다면 지구 전체가 오염되는 거나 다름없어.

**바다** : 오염수에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안되어있어.

**쟁쟁** : 어떤 교수들은 자기들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그 물을 마셔보겠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후쿠시마에서 나온 과일 이 안전하다며 먹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었잖아.

**산들** : 그래. 진짜 어이없는 주장이야. 지금 당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깐 우선 방류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때는 절대 돌이킬 수 없어.

**바다** : 무조건 국제해양법센터에 제소해야 돼.

**쟁쟁** :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야. 바다가 오염되는 순간 모든 생명이 오염되고 말 거야.

### 우리도 탈핵운동 10년차

**쟁쟁** : 우리도 YWCA에서 탈핵운동한 지 10년차야.

**파도** : 우리가 Y틴이었던 2014년에 주제가 탈핵이었어.

**산들** : 그 이후에도 탈핵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계속 운동했던 것 같아.

**바다** : 나는 활동한 지 얼마 안돼서 탈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만 많이 접했던 것 같아.

**쟁쟁** : 기후위기운동도 생명운동 안에 포함되지. 예전에 우리는 불의날 캠페인, 고리1호기 가동중단 캠페인도 하고 탈원전에 대해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

**산들** : 나는 한일Y청소년협의회에 참여했어.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고, 현장에도 가보면서 세계2차대전의 피해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게 너무 충격이었어.

**파도** : 맞아. 그 이후에는 일본 참가자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한국의 원전을 방문했었어. 그때 발표준비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지 운동을 더 열심히했던 것 같아.

**산들** : 그때 진짜 열심히 했지. 이야기만 듣는 것 보다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험성에 대해 더 공감했던 것 같아.

**쟁쟁** : '항해' 노래 기억나? 탈핵송, 울동도 여기저기서 엄청 쫓았지. 우리가 직접 울동도 만들었잖아.

**바다** : 나는 이번 5월 20일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에 참여했는데 처음으로 대형 집회에 참석하면서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너무 힘이 됐어.

**쟁쟁** : 맞아.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YWCA내에서 다양한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한다는 생각에 운동하는데 용기가 많이 생겼었어.

**바다** : 코로나 때문에 환경운동을 혼자서 실천하는 것 밖에 못했었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다 보니 무기력해졌었거든.

**산들** :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연대가 중요한 것 같아.

**파도** : 함께하는 운동이 당장의 변화는 없어 보여도 돌이켜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YWCA 안에서 같이 운동하는 것 같아. 🍀

# 윤석열 정부 1년, 여성가족부 평가 토론회

##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지난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임명하며 여성가족부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현숙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역할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라 선언했으며, 최근까지도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조직개편의 전제 조건이라 말하고 있다.

한국YWCA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로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를 주장해왔다. 한국YWCA와 여러 단체들의 운동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지되었으나, 폐지 저지가 무색하게도 여성가족부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슬로건은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변경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보다 가족, 청소년 정책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한국YWCA는 지난 1년 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향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돌아보는

### 여성가족부 20년+년과 향후 과제

박선영 연구위원은 델파이 조사<sup>1)</sup>와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출범 20년이었던 2021년까지의 업무와 지난 1년 간의 업무, 그리고 향후 여성가족부의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이 진행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의 성과는

1)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를 제도화한 것, 2)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진 것, 3)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하고는 법령이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수행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여 성차별 시정 기능이 부재한 것을 여성가족부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성평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현행 구조와 명칭을 유지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박선영 연구위원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이어갔다. 박선영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20년의 두드러지는 성과로는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여성인권 보호, 여성대표성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적 성평등 정책 추진, 성평등 문화 확산, 정부부처의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독립된 부처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의제의 설정과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집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정부 전 부처의 성주류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조직의 규모와 적은 예산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했으며, 양성평등정책 실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극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약점으로 평가되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특화정책, 젠더폭력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정책이 혼재되어 있지만, 정영애 전 장관이 운영했던 2022년과 현 김현숙 장관이 운영하는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현숙 장관이 노동업무를 복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2023년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 김현숙 장관이 언론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초 하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제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현재 성평등 관련하여 여러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여성가족부 1년, 성평등 추진체계 기능 못해

그러나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말하지 못하는 장관이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내

용과 역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슈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스토킹 범죄 피해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밝히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발언이었다. 결국 김 장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다른 부처의 역할로 넘겨버리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정치 싸움이 불러일으킨 젠더 갈등에 과하게 집중하며,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남성 달래기에 치중하고 있다. 이전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받던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박선영 연구위원의 발제처럼 성차별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길었던 1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변했고, 여러 지역의 여성가족과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성평등 관점이 없는 정부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 국가의 공백이 만든 성차별 현실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1)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질문 문항을 토대로 합의를 도출하는 조사 방식이다.

# “감히, 사랑”으로 성차별적 한국 교회와 사회를 살려내자

## 글·편집실

24개 기독교 단체가 모여 세상의 모든 폭력과 차별에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7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감히,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도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 폭력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차별적 시선에 저항 폭력 피해를 겪은 희생자 위로하기 위한

여성주의 연합예배는 7년 전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범죄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차별적 시선에 저항하고, 이러한 폭력 피해를 겪은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7주기 예배에서는 ‘다시, 사랑!’을 외쳤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여전히 성차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다. 참석자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옷을 입고 예배에 임했다. 이꿈이의 인도에 따라 예배가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호흡기도를 통해 침묵으로 예배를 준비했다. 이꿈이는 성 시므온의 기도를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엘리사벳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대감을 나눴다. 이어진 순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현안 기도와 죄책 기도, 용서와 위로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현안 기도를 맡은 방소연(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은 “교회는 사회보다 훨씬 뒤쳐져있으며 신의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죄책 기도를 맡은 강수빈(감리교여성성도력개발원)은 “여성혐오범죄의 희생자들의 아픔에 깊이 다가가지 못하고 무게를 나누지 못하

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죄이자 연약함이며 공동의 책임”임을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위로 선포에서 김나경 목사는 “당신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의 연대가 서로를 지탱하며 위로할 것이라며 모인 이들에게 용서와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민희 목사(옥바라지선교센터)는 로마서 8장 35절-37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35절 말씀을 바탕으로 “감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퍼기를 이어갔다.

### 처참한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던 연대 차별과 억압의 세상 속에서 연대 다짐

이민희 목사는 “2016년 5월 서울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낮선) 남성에게 살해당했던 사건에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던 연대는 율법주의와 같이 정죄만 하는 목소리에 맞설 힘이 되었다”면서 “연함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강남역 여성혐오범죄의 사건은 모인 이들의 공동의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보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말씀 퍼기 이후 차별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에서 연대하며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성찬의 시간을 가졌다. 성만찬 제정사는 장근지 전도사(문수산성교회)와 이영미 목사(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가 맡아 집례했다. 성만찬에 참여한 이들은 집례자의 제정사에 따라 “여성혐오로 가슴이 찢어가는 이들, 강간당한 이들, 부정한 존재로 낙인찍힌 이들, 가부장제의 쇠사슬에 묶인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며 성찬을 기념했다.

### 치유와 회복을 염원하는 기도의 몸짓, 엘름댄스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들은 ‘엘름댄스로 예배에 모인



이들과 함께 했다. 엘름댄스는 수많은 폭력과 차별, 혐오로 인한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을 염원하는 기도의 몸짓이다. 예배의 마무리인 파송사를 맡은 안수경 목사(한국기

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는 “수많은 세상의 백래쉬를 함께 맞서며 용기 있게 나아가자”고 기도했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 1 글·편집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예정일을 두달 여 앞두고 5월 20일(토) 오후 3시에 중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공동 집회를 열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는 약 1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더 많았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거짓으로 강조하고, 국제적 동의를 구하는 데에 전념하고 우리정부는 제대로 일본의 '들러리'노릇을 자임하고 있기에 시민들의 참

여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의 발언에 이어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진 순서는 개사 노래부르기 순서였는데,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활동가들의 노래와 울동에 맞춰 ‘개똥벌레’ 음률에 따라 “~ 괜찮다 속여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바다 오염수가 방사능인 걸~”을 부르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온몸으로 반대하였다.

연대 발언을 위해 이날 아침 제주에서 상경한 정근호 제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라며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해치냐!”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투기 계획을 비판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공동선언문 낭독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날 선언문’ 낭독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이 순서를 맡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고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들과 함께 강력히 주장했다.

집회의 열기가 뜨겁고, 참가자들과 함께 여러 구호를 외쳐서 예상 마무리 시간을 넘겨 행진(청계광장-종각-을지로-시청)을 시작했다. 행진 초반, 행진에 함께하는 정치인을 촬영하기 위해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뒤섞여 앞으로 진행되기가 힘들었다.

행진이 을지로 입구에 들어서자 사전에 준비한 ‘다이인’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드럼통을 부으면, 오염수를 상징하는 검은 천이 행진 대열 가운데를 가로질러 참가자들이 양편으로 쓰러지는 것을 형상화했다. 오염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담은 퍼포먼스였다.

서울시청 동편에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바다는 세계 모두의 것이며, 세계는 바다로 이어져 있다. 만약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그것은 일본 정부 말대로 해양투기가 30년 동안 이어진다면 세계를 상대로 핵 공격을 하는 셈이다. 모든 세계 시민이 힘을 합쳐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파국의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행동하는 실천과 진실함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 이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올해 총 37명이 수료한 2023 YWCA 신임실무활동가교육이 5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사)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한국YWCA 목적과 정체성 기본이해>(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 <탈핵기후생명운동, 성평등운동, 청소년운동>(유에스더, 이한빛, 이은혜 연합회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원자력발전>(김혜정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여성·평화·안보(WPS) 그리고 YWCA 평화·통일운동>(최수산나 연합회 국장), <YWCA 활동가 마음 나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에는 현장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탐방 시간에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하고 <제1597차 수요시위>에 참여하였다.

<2023 YWCA 신임실무활동가교육>은 신임 활동가들이

에큐메니컬 기독교시민운동단체인 YWCA의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남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여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YWCA목적문의 변천과정을 통해 YWCA의 존재 이유이자 활동의 근원이 되는 YWCA의 목적을 되새기고, YWCA의 기독교여성들이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일해온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성평등운동, 청소년운동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이 땅에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한 YWCA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방사

능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에 대해 배움으로써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느꼈다.

교육 이후 참가자들은 <YWCA 활동가 마음나눔>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가가 될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

졌다. 교육 2일차에는 YWCA활동가로서 현장 집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1957차 수요시위>에 참여하였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우선 관람하여 전쟁범죄와 여성 인권에 대해 접하고 수요시위에 참여했다. YWCA활동가로서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다.

### 참 가 소 감

##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 김수현 고양YWCA

2023년 4월부터 고양YWCA에 활동한 지 한 달이 지나가는 때에, 마치 나를 위한 시간과 같은 '2023 YWCA 신임실무활동가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전국 회원YWCA에서 온 신임실무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반가움과 YWCA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연합회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다함께 모여 여는 예배로 주신 첫 말씀은 '에큐메니컬 신앙'과 '하나님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간 연합과 일치'를 향해 가는 걸음. 또 크게는 복음이 인간중심성을 넘어서 온 우주로 확장시켜, 정의와 평화,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에큐메니컬은 YWCA의 목적문에 들어있는 JPIC(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의 유래이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였습니다.

구정혜 상임이사님의 강의를 통해 YWCA의 목적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정되는 것을 보며, 시대적 부름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쇄신하는 YWCA만의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 중점운동과 현안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커졌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라"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김혜정 선생님의 말씀이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활동가 네트워크' 시간에는 조원들과 함께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읽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나라에 기반하여, 약자의 편에 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젊은 여성활동가가 되리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탐방과 '제159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의 참여는 전날 이론 교육에 부합하는 실무활동가다운 '산 교육현장'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용기를 내주신 할머니들께 감사하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죄송하여서, 분노와 눈물로 뒤엉킨 제 뱃속의 매스꺼움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요집회에 나온 중학교 학생들의 발언으로 인해 희망을 바라보고, 동시에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일정을 마쳤습니다.

##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 허유림 부산YWCA

YWCA 신임실무활동가교육에 참석해 YWCA가 지닌 고유의 색깔을 깊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YWCA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WCA의 목적문과 중점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쳤던 YWCA의 운동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원자력 발전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반대를 외치는 YWCA 움직임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탐방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의 참혹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어 제1597차 수요집회에 함께 참석하며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중 신임실무자대표로 수요집회 발언에 나섰습니다. '전쟁을 가속화 시키는 외교가 아닌 모든 국가가 공생하며 기본적인 인권이 탄압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교육을 들으며 YWCA의 운동이 나비효과를 연상케 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폭풍을 불러오는 것과 같이 YWCA의 움직임이 사회에 선한영향력을 일으켜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관람한 후 15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신임 실무활동가들

# 인류 해양생태계 피해 아랑곳하지 않는 IAEA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거부되어야 한다

| 김해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공동대표,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

## 일본 정부도 마시지 말라는 오염수를 마시겠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연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오염수를 마실 거냐’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음용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앞 다퉈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일찌감치 ‘삼중수소 희석 전 오염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영국의 한 교수를 불러서 오염수 음용 불씨를 지폈다. 정작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 처리수라 하더라도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일반시민과 전문가 등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희석한 삼중수소수라 하더라도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는 오염수에도 방사성핵종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마시지 말라는 오염수를 대한민국 정부당국이 마시지 못해 안달하는 반면, 오염수 방류가 되기도 전에 5월 달 일본산 어패류 수입이 30.6% 감소하고, 천일염 품귀현상으로 천일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오해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일일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의 브리핑인지 일본 정부의 설명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브리핑 자리에서 일본 정부를 ‘저희’

라고 여러 차례 표현한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고 여길 만큼 날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오염수 안전성 강조에 여념이 없다. 여당의 ‘우리바다지키기 테스크포스팀(TF)’이 발족 첫날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수’로 부르는 게 과학적이라고 강조했다가 여론에 밀려 수그러들었던 ‘처리수’가 정부 브리핑에서 다시 등장했다. 국내 원자력계 출신으로 IAEA에 근무했던 인사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 IAEA 검토팀의 목적, 안전성 검토 아닌 오염수 해양방류 기술적 지원

국내 원자력계 인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일까? 정부와 원자력계가 과학적·객관적 검증 결과물이라며 믿어야 한다는 IAEA의 경우를 보자.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IAEA는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과 협약을 맺고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토 TF를 발족했다. IAEA 검토팀은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일본 정부가 위임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배제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이후 종료되지만, IAEA는 원전의 종합 폐로 활동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토 범위에서 제외했다. 원전폐로가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오염수 해양 방출 기간을 일본 정부가 정한 30년으로 제한했다. 잦은 고장과 핵종 처리 성능이 떨어지는 다핵종제거설



비(ALPS)의 성능 검증과 기준치 초과(72%) 핵종에 대한 처리 대책도 검토하지 않고, 도쿄전력이 재정화해서 내보내겠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오염수 탱크 밑바닥에 고준위 핵종이 슬러지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도 검토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이 IAEA 일반안전지침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지만, 이를 묵인 방조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오염수 방출 결정은 IAEA 검토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전제하면서도 해양 방출은 국제관행에 부합한다며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 IAEA, 1,070개 오염수 탱크 중 도쿄전력이 떠준 3개 샘플 측정으로 시료의 대표성·균질성 인정

무엇보다 1,070개가 넘는 탱크 가운데 도쿄전력이 떠준 단 3건의 샘플 분석만 해놓고 도쿄전력의 시료 채취 및 대표 시료 방법론과 분석방법이 적절하며, 오염수에서 유의미한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3건의 샘플 중 첫 번째 샘플을 제외하고, 23번째 샘플은 탱크내 바닥에 있는 슬러지를 포함하여 위아래 전체 오염수를 섞는 교반작업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시료의 대표성과 균질성을 상실했는데도 보고서에선 샘플링 조사 시 ‘탱크 간의 균질성이 입증되고 샘플링도 적절하다며,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IAEA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토에서 오염수 처리 기간, 원전폐로 과정, 오염수 안전성 확인, ALPS 성능 검증, 기준치 초과 핵종의 처리방안,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생물

축적, 방사선 피해의 최소화 대책 등 오염수 방류시 안전성과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은 제외했다.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와 샘플에 의존하면서 교차검증이나 대표성 있는 샘플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IAEA는 정부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기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일해온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기구일 뿐이다.

## 오염수 음용 논쟁과 삼중수소 무해성 주장으로 본질 흐리는 원자력계

국내 원자력계가 그동안 오염수 안전을 주장해온 과정보다 과학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진흥의 본거지인 한국 원자력연구원원 위드 앨리슨이라는 영국 교수를 불러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주장을 퍼는 기자회견을 했다. 여당은 그 교수를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앨리슨은 원자력연구원과의 기자회견 때는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했다다가 10리터까지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앨리슨 교수는 ‘일반인 피폭 방사선량 허용한도를 지금보다 1천 배로 높여서 원전 건설비용을 낮추고, 원전을 빨리 증설하자’는 주장을 퍼온 원전 맹신론자이다. 국내 원자력계가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교수를 불러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칭송하며 자신들의 속셈을 알리려고 한 셈이다. 원자력계가 오염수 홍보맨처럼 활동하는 이유는 모두 그들 자신이 원자력산업이라는 이해 기반위에서 살아오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 힘 의원총회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감시하기에 더 좋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이 1년간의 삼중수소 피폭량이 바나나 5~6개, 멸치 1그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퍼는 교수이다. 자연계에 있는 방사능과 비교하며, 원전이나 후쿠시마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해서 발생하는 오염수 방사성 핵종의 문제를 몰타기하는 전략이다.

### 바나나와 삼중수소 비교는 오염수 본질 숨기기

바나나와 삼중수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몸 안에 들어와 아미노산이나 유기물질과 결합하면 체내에 오랜 시간 누적·잔류하면서 DNA를 손상시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삼중수소 관련 전 세계 논문 250개를 분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과 티머시 무쏘 교수에 따르면 삼중수소에 피폭된 실험쥐에서 정자와 난자, 생식기 손상이 관찰되었다며, 삼중수소 피폭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고 여러 세대를 거치며 유전자변형을 초래한다. 무쏘 교수는 삼중수소 오염 어패류 섭취시 세습보다 2배 이상 내부 피폭 위험이 있고, 저에너지 베타선이 세포조직이나 장기를 벗어나지 못해 집중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나나에 들어있는 자연방사능 칼륨40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적응해온 물질이다. 칼륨은 체내에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섭취되며 농축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무엇보다 바나나에 있는 자연방사능 칼륨40은 인공방사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하다. 미주리 대 임상실험과학 디렉터인 스티브 스타는 세슘137과 칼륨40의 방사선량 비교는 인공핵종인 세슘137은 자연핵종인 칼륨40에 비해 천만 배나 더 많은 방사선을 방출하며 2그램의 세슘에 있는 방사능과 같은 양의 칼륨 40을 섭취하려면 20톤의 바나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방사성물질 세슘 2그램을 방사성 가스나 연무 형태로 뉴욕 센트럴 파크에 뿌리면 10년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정도로 강력한 독성이 있다. 바나나의 칼륨40은 어패류의 생물농축을 통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지 않지만, 삼중수소는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으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원전사고 끝났다는 거짓신화 쓰고 싶은

#### 일본 정부, 원자력계 그리고 한국 정부

원자력계는 일본 정부와 똑같이 삼중수소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137 등 63개의 위험한 핵종이 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심지어 오염수 70퍼센트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정상적인 가동 원전은 통제 하에 방사성물질을 배출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핵연료와 직접 접촉한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것이다. 알프스 처리 성능과 방류 시스템을 신뢰할 수도 없지만, 일본 정부와 원자력계 주장대로 알프스가 제대로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 수십 종 이상의 방사성 핵종(기준치 이내라는 명분으로)이 바다로 방류되어 해양생태계에 축적된다는 것이다.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내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도 방사선의 안전기준치는 제로라고 정의하면서 가능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라는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염수 육상저장 방식을 강구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 대신 정부당국과 원자력계가 한 몸이 되어 일본 정부 홍보맨을 자처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해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폐 요청과 관련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발언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술적 수치를 내세우며 일일브리핑을 한다고 오염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야말로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궤변을 일삼는 원자력공학자를 내세워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원자력계의 일련의 행태는 오염수를 바다로 폐기해서 후쿠시마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원전사고는 끝났다는 거짓신화를 만들고 싶은 일본 정부와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국민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내몰고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골몰하는 집단만을 대변하는 정부를 믿고 오염수 안전을 확신할 국민은 없다. 인류 공동자산 해양 생태계 오염과 주변국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방류를 옹호하는 IAEA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거부되어야 한다. 🇵🇵

#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서 불안한 사람들은 소금과 건어물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국민의 우려에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염수는 어느덧 정쟁의 도구로만 이리저리 사용되고 있다. 누구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들은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 그 자체를 향한 비난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대립구도를 세우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일까?

### 아침부터 밤까지, 도쿄의 하루를 달궜던

####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5월 16일 도쿄에서는 온종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와 ‘샤요나라(잘가라) 핵발전소 1000만인 액션’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이 날 집회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다.

연합회가 연대하는 탈핵시민행동의 활동가들은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대하기 위해 본 집회에 참석했다.

오전 10시, 도쿄전력 앞에서 시작된 집회에는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어업을 지켜주세요”, “미래를 지켜라” 등 각기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모였다. 방사성 물질을 30년 이상 바다에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쿄 전력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양국의 YWCA 활동가들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다음은 한국YWCA 활동가가 연대발언한 내용의 일부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YWCA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한국YWCA는 탈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피폭에 더 취약한 여성에게, 더 오랜 세월을 살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어 사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피해는 방류로 얻는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 한일 양국이 잠시의 이득을 위해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집회는 국회 앞으로 이어졌다. 후쿠시마현의 시민은 “후쿠시마현 시민들의 70%가(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옆 미



야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지역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며 성토했다. 한 미나마타병의 피해당사자는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과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행동을 전개했다. 이곳에서는 오염수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여러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한 일본 정치인은 현재 일본 국회 상황에 대해 “몇 년 전에는 핵발전소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제 반대로 가고 있다”며 모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핵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바닥이 붕괴하고 있음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며 지금도 이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수뿐만 아니라(후쿠시마 핵발전

소도)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곳에는 또한 신주쿠 공원 내 후쿠시마 오염토를 재활용하는 실험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민도 참여했다. 신주쿠 시민은 “도쿄에서든, 어디에서든 오염토 재활용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주최 측은 4가지 사항이 담긴 요청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1. 후쿠시마 어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
  2. 국회와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나서고, 방사선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것.
  3.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대형 탱크의 장기보관과 모르타르 고체화 등의 대안 검토 등 오염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국회는 이를 감시할 것.
  4.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만들 것.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히비야 음악당에서 열린 마지막 집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일본 국회의원들과 시민

단체 활동가들이 발언에 나섰다.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지역 어업협동조합의 야나이 다카유키씨는 “해양방류가 되면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 오다 치요씨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해왔다. 우리는 사고 전에 누렸던 일상생활을 모두 잃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방사능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때로 ‘바다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긴자 시내를 가득 채웠다. 후쿠시마로부터 피난하여 뿔뿔이 흩어진 이주민, 어민 등의 피해당사자를 비롯하여 일본의 핵발전 재가동과 오염토 재활용 등 핵발전 추진정책으로 고통받는 일본 시민들, 그리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활동가들까지, 우리가 바라는 바는 같았다. ‘어디에 사는 누구이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권리가 지켜지는 것’.

###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핵발전을 위한 국가적 폭력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된 핵발전을 다시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멈췄던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핵발전 진흥책의 시발점일 뿐이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방류하고, 후쿠시마의 오염토를 일본 전역에 흩뿌려 핵발전은 안전하다는 신화를 다시 부활시킬 속셈인 것이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수명만료 된 고리 2호기를 비롯하여 전국의 핵발전소가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절차를 줄속으로 밟고 있다. 피폭이 확인된 월성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신규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은 SMR은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핵발전 확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핵진흥 정책을 위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리가 없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한 일이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도 아니고, 일본을 향한 혐오로 얼룩질 문제도 아니다. 한일 양국의 핵발전 진흥 정책의 기초아래 자행되는, 느리지만 치명적인 국가 폭력의 문제이다. 핵발전의 피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방사성 오염수에 저항하는 우리, 연대의 물결

16일 도쿄 행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의 활동가들은 이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YWCA를 비롯하여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제염토 재활용반대시민모임, 재가동저지전국네트워크, 신주쿠 요요기 시민측정소,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추후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였다.

한국과 일본YWCA는 세계YWCA에 제출할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7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YWCA 협의회’를 통해 논의 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YWCA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피해 주민 지원사업과 함께 후쿠시마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예정이며, 한국YWCA가 고리 1호기 폐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는 탈핵운동의 이야기 또한 담긴다. 핵발전 진흥이라는 국가적 폭력 아래에서도 살고 살리는 소명을 다해온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이러한 발자취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액션과 우리의 요구 또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성명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YWCA는 탈핵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누구 하나 올바른 답을 말하지 않는 혼란한 시절이지만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문제를 직면하는 당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외쳐야 한다. 여러 만남 중에 특별히 핵발전으로 고통 받은 여성의 자리에서, 안전을 지켜내는 여성의 목소리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YWCA 자매들의 연대와 함께함의 힘을 기대해본다. 

# 여성의 시선에서 본 평화



| 백소영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해마다 6월이 되면 가슴 아프게 떠오르는 민족적 아픔이 있습니다. 이미 두 세대로 훌쩍 지났습니다만, 직접 경험한 세대나 전해들은 세대 모두 나름으로 6.25를 되새깁니다. 대낮의 뜨거움이 부쩍 강렬해진 이즈음이면 구순이 넘으신 시아버님은 대학 1학년 때 멋모르고 운동장에 모였다가 참전했던 전장의 냄새가 그 더위와 함께 여전히 코앞에 있는 듯하다고 하십니다. 정성껏 만들어 한창 맛이 좋은 고추장 향아리를 피난길에 고스란히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 막내딸에게 조금 퍼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던 친정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날의 일을 후회하십니다. 그 길로 막내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직접 겪으신 1세대는 이렇게 6월이 남다르게 아프실 겁니다. 그만큼의 직접적 고통은 아니지만, 전해들은 저희도 마냥 무심한 달은 아닙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함께 평화의 염원이 더욱 깊어지는 달이죠. 2023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6월의 뜨거움이 폭력과 죽음의 경험들로 채워지는 고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미리암의 노래(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는 '말과 그 탄 자들'처럼 말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 시며 어린 나귀를 타셨죠. 어린 나귀와 말이 상징하는 삶의 자세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당시 말은 여가용이 아니었으니까요. 직립 보행하는 사람이 다른 동물들에게 가지는 우월감이 종종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듯, 말의 높이와 속력을 더하여 '증강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발아래 두고 업신

여기며 폭력적으로 굴복시켜왔습니다. 그 말을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 달려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을 저지시킨 분, 그래서 진정한 '살림'을 가져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글로 전해지는 최초의 여호와 찬양이라고 평가되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염원했던 평화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순순하게 굴복했으면 불필요했을 갈등이고 전쟁이다." 이웃의 경계를 침략해 들어오면서 억지 논리를 펴는 억압자들을 여호와께서는 '바다에 던져넣으신 분이십니다. 하여, 살림은 언제나 구원 상태와 직결됩니다. 억압자와 억압의 도구가 사라졌습니다.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크고 강한 팔을 펼쳐 단번에 화끈한 평화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의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강자들은 기다리기가 덜 괴롭습니다. 오늘(6월 1일) 새벽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해양 방출 예정인 오염수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실은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죠. <위험사회>의 저자 올리히 벡은 일찌감치 정신과 양심을 잃은 전문가 집단의 편향성, 이익 지향성을 경고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당분간'은 오염된 물이나 먹거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죠. 우리 앞바다가 오염되더라도 저 멀리 청정바다에서 먹거리를 가져올 부와 권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21세기 '말을 탄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는 쪽은 약자이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많은 바다 생명이 죽어가고

거기서 생존의 먹거리를 의지해야 하는 어부들과 서민들이 생존권과 건강권을 잃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사르밧 과부의 고백(열왕기상 17장 12절)이 남다르게 읽혔습니다. 엘리야 당시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먹거리가 없던 시절, 더구나 가장을 잃은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초근목피로 연명하려고 해도 주변에 생기있는 나무조차 없었을 겁니다. 수분기 하나 없이 말라비틀어진 나무 두 조각쯤 가져다가 마지막 남은 재료로 정성껏 밥을 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먹이려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표현은 자기 언행이 진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희망을 담은 어구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는 생명을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르밧 과부의 대답에서 절망과 희망을 함께 읽었습니다. 목마른 피조물과 함께 고통받으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여인은 인간적 조건으로 보자면 사실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내일 죽으나, 신세 한탄을 하며 오늘 죽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하여, 아니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어린 생명을 마지막까지 '먹이려' 하였습니다.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나무가지 돌'이라는 말 또한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꼭 두 가지여야 불이 피워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징적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둘이 함께하려 합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나 혼자 먹고 기어이 남보다 하루를 더 살아보겠다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사르밧 과부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생명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정말 작습니다. 겨우 향아리 바닥에 붙은 겨우 한 줌과 그걸 구울 기름 조금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나 혼자 이틀 살아보겠다는 마음은 품은 적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의 최선을 다해 아이의 오늘 숨(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던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와 떡을 달라고 합니다. 마

음이 고와질 리 없지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니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그가 생명을 낳은 이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겠지요. 생명을 길러내고 지켜본 심정으로 '내일 도래할 살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요.

가다리는 동안 그녀가 한 선택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개입이 없다면 나와 내 아들의 생명은 오늘을 애써 살아낸 '그 후에' 그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난 오늘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살려내며 그렇게 여호와와 강한 팔이 펼쳐지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사르밧 과부의 말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이 담긴 말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시돈 땅에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굶어 죽었으나 오직 사르밧 과부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 복과 기회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과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살림, 구원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시선을 이미 알고 계셨고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녀는 추레한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는 순간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마지막 음식까지 뺏어가려는 거냐고 악다구니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할 것임을 미리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말에 올라탄 자'라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팔을 펼쳐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가진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자원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결국은 살림의 구원 상태를 볼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와의 살림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사르밧 과부의 시선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생명 사랑이 결국엔 이 땅에 살림을 가져올 겁니다. 

# 동아시아의 페미니즘으로

##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름도 낯선 독일 노이엔델사우(Neuendettelsau) 지역에 다녀왔다. 한국의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서다. 짧은 출장기와 감상을 담아본다.

### DOAM(Deutsche Ostasienmission)

필자를 초청한 곳은 DOAM으로 1884년에 설립된 동아시아 선교 단체이다. DOAM은 독일 EMS(Evangelische Mission in Südwestdeutschland, 서남독교회선교회)의 창립 멤버이기도한데, 독일 교회의 선교 전반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DOAM이 목적으로 하는 선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와는 거리가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에큐메니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선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 관점에서 선교란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교회의 선교(Missio Ecclesiae)'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방식은 과도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이나 교파/교단간 전도 갈등 문제, 또 식민지에서 전개한 선교활동으로 인한 반(反)기독교 운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선교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에큐메니칼 선교는 포용적인 선교를 추구하며 분파주의와 당파주의

에 반대한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여러 교단의 교회가 경쟁적으로 선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에큐메니칼 선교는 '전 세계적인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따라, 하나의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가는 관점에서 선교를 전개한다.<sup>1)</sup>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불린다.

에큐메니칼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가 교회로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만큼 선교의 자리는 세상, 사회가 된다. 전통적 선교의 목적이 교회 확장에 있었다면, 에큐메니칼 선교의 목적은 사회 안에서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회복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선교의 시선은 사회 안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 DOAM 컨퍼런스

DOAM은 교회와 사회 내에서 긴급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가 성평등이라고 보고, '논쟁 속 페미니즘'을 주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페미니즘 관련 상황에 대한 발표, 워크숍, 토론 등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한국의 백래시 상황과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발표와 워크숍 진행을 요청받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일본, 대만, 홍콩에서 참여한 발표자들이 있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불평등 현실, 20대 대통령 선거와 백래시, 한국 교회 몇몇 교단의 반 LGBTQ+ 정책, 한국YWCA의 성평등운동을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워크숍에서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주제로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한



영상과 간단한 보드게임을 통해 직접 한국 여성이 되어 생각해 보게끔 하였다. 발표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한국 페미니즘 운동에 기여한 바를 묻기도 하고, 한국YWCA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는 참석자들도 있었으며, 한국 성차별 현실에 대한 향후 전망을 묻기도 했다. 워크숍 후에는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러한 반응이 다시 나를 놀라게 했다. 나에게서 너무나도 익숙한 성차별적 현실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나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 쓸쓸했다.


다른 국가의 발표도 흥미로웠다. 기조발제에서 듣게 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을 반대하며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 홍콩 민주화운동에서 여성운동가들의 활동, 일본 교회의 여성 안수 문제와 장애인 차별 문제,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와 교회의 역할 등을 들으며 다양한 동아시아 페미니즘 운동을 배우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한 공간

이번 컨퍼런스는 무엇보다 상호 간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 만큼 참여자들이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 측이 많은 노력을 했다. 주최 측의 반은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은 페미니즘을 주제

로 선정하고 발제자를 초청하였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그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심각한 여러 갈등을 동시에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발표에는 '한국의 끝나지 않는 갈등'을 다룬 부분이 있었다. 지난 2021년 킹스컬리지(King's College)에서 발표한 문화 전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sup>2)</sup> 한국은 특별히 젠더 갈등이 아니더라도 교육, 재산, 정치적 관점, 지지하는 정당, 세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 안전한 공간은 에큐메니칼 선교와 결을 같이한다. 안전한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행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창조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YWCA의 운동이 청년들과 또 다른 형태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로 안전한 공간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컨퍼런스 일정 동안 만난 활동가들과 향후 에큐메니칼 선교의 지평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1)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질문 문항을 토대로 합의를 도출하는 조사 방식이다.  
2) King's College London,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2019)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들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출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들의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담한 마음부터 든다. 최근 수 차례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의 정상들과 회담 자리가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2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을 보낸다고 하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만 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데, 과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일본 정부에 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일본 동경전력에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5월 20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따라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휴전상태조차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지경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협상은 2019년 하노이에서 멈춰선 후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주저하는 가운데 협상은 깨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의만이 농당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로를 자극하는 무력시위는 그 한계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결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책임있는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규모와 공격적인 성격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위협천만한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사 정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의 해결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선봉을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 주민들은 주변국의 갈등에 더욱 깊숙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력시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평화도 비핵화도 모두 현실에서 멀어져나가고, 한반도는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핵 군비경쟁과 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 휴전 70년을 맞습니다. 300만 명이 희생된 3년간의 전투를 멈춘 상태로 평화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적대와 대결의 70년을 보내왔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날 한반도는 지금 어렵게 들어섰던 대화와 협상, 관계 개선의 길을 벗어나 안전장치 없는 대결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현 정부는 평화적 대화 노력은 실패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이유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하는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중단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총돌과 파국을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조되는 전쟁 위기를 해소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서로가 느끼는 위협을 감소할 방안을 찾아나갈 협상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오늘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까지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로 정하고 국내외 시민 여러분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 집중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300곳 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평화선언과 평화행동의 물결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는 7월 22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평화행진에 참여해주십시오. 평화대회 시민추진위원이 되어 대회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동안 결집된 세계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세계 곳곳에 전파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바로 평화가 절실한 시간이고 평화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서울과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는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합시다.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한반도-아시아 평화공존 실현합시다.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2023년 6월 13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 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부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차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인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땀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 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신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볼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오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댕, 핵발전소 폐쇄하라!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 탈핵시민행동

故 이명혜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故 이명혜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가 4월 14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원로목사가 "귀향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은영 부회장의 기도, 구정혜 상임이사의 약력소개에 이어 추모영상을 나누었고,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마산YWCA 실무활동가로 YWCA와의 인연을 시작하여 여성직업개발, 리더십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고 YWCA 95주년을 맞이하며 지난날의 고백과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갈 Go 100! 으로 열정을 나누셨던故 이명혜 증경회장님을 기억하며, 천국에서 귀향의 행복을 누리고 계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약력	1946년생, 2022년 4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YWCA 활동 경력	1977 ~ 1987 마산YWCA 프로그램 주간사/총무 1989 ~ 1994 대한YWCA연합회 지방위원 1994 ~ 2003 대한YWCA연합회 지도력양성위원회 위원, 서울YWCA 사회문제부 위원 1994 ~ 2020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서울YWCA 재정부 위원 1997 ~ 2000 한국YWCA연합회 근로복지위원회 위원장 2002 ~ 2000 한국YWCA연합회 회원조직운영위원회, 인력개발위원회 위원장 2009 ~ 2011 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팀 팀장, 임원(회계),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2011 ~ 2013 한국YWCA연합회 임원(제1서기) 2014 ~ 2015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 2016 ~ 2017 한국YWCA연합회 회장 2020. 7 ~ 2022. 4 (사)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2020. 8 ~ 2022. 4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2017 ~ 2018.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 한국어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운영위원 2017 ~ 2020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 故 주선에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으니 다시 뵈을 날도 1년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다시 만날 아름다운 기다림과 복된 소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운 선생님 계신 곳을 믿음, 소망,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선생님은 어둡고 암울했던 이 땅의 역사 속에 약한 여성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셨습니다. 한 세기 가까운 삶을 사시는 동안 바쳐진 간절한 기도,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은 제자들과 후배들, 동역자들과 특히 보살핌 받은 이웃들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열매 맺기를 계속하리라 확신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입술의 외침이 아닌 실천하는 삶으로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강의하신 교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신 참스승이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후배들, 북한이탈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사신 분이셨습니다.

20여 년 전, 선생님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아파트는 선생님의 안식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거처인 듯 했습니다. 외롭고 배고프며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아지트처럼 활용하는 곳, 언제나 배고픈 자는 먹을 수 있고, 피곤한 자들을 잠을 잘 수 있으며, 외로운 자들은 함께 기도하며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한 기도처로, 회의실로,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기 위한 상담소로, 섬김 프로그램의 준비 터로, 심지어는 수많은 나눔 행사를 준비하는 물품창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현장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가장 강한 설교였습니다.

‘나는 음식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1년 동안 새옷을 사지 않는 ‘옷 금식’으로 대신하려고’ 하신 어느 날의 대화는 지금까지도 잔잔한 메아리로 들려옵니다. 저희 가슴 속에 살아있는 교훈이며 물려주시는 복된 유산으로 새겨진 주선에 선생님은 ‘참 신앙인의 생활교과서’이며, 21세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목소리 높으신 적 없고 감압적인 태도나 훈계로 후배들이나 회의를 이끄신 적 없지만 왜 선생님 앞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웃기를 여미게 되는지요? Y에서 나누어 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힘, 깊은 관심과 배려,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온유함의 지도력은 언제나 모두를 감동시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지만 분명하게 전하시던 모습은 겸손함과 온유함의 덕목과 함께 그릇된 양심과 비뚤어진 욕심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애도함이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몇 년 전, 선생님께서 입원치료를 받으시던 중에 저의 항암치료 소식을 들으시고 “같은 시기에 아프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네요. 우리 같이 잘 이겨내요” 하셨던 선생님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지도력이 가슴 저리도록 그림습니다.

현신의 화신 같았던 선생님 앞에서 우리들, 겸손함으로 웃기를 여미게 됩니다. 말씀의 원칙 따라 사심과 욕심 없이 계속 달려가셨던 선생님의 모습 따라 저희들 삶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뵈는 날,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길 선생님을 그리며 인사드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 ▶약력

1924. 2. 20 평양 하수구리 59번지에서 출생  
2022. 6. 19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 ▶YWCA 활동 경력

1982~1985 서울YWCA 이사  
1983~1997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1994. 2~1994. 7 대한YWCA연합회 회장  
1997. 7~2022. 6 대한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992~2007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2002. 5~2008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초대 이사장

### ▶외부경력

1951 부산 부전교회 전도사(제1대 여전도사)  
1954 대구고등성경학교 교사  
1958 서울여자대학교 설립 직원 및 강사  
1959, 1969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1959~1966 숭실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기독교교육학과 개설)  
1966~1989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1989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2002 전국여교역자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2003 (사)목회지원회 대표이사  
2005 한국기독교여성모임(KCWA) 공동대표  
2005 탈북자종합회관 관장  
2005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교 석좌교수  
2010 김팔례선생기념사업회 초대 회장  
2013 남북이 함께하는 살롱 공동체 설립 (사)새빛자매회 이사장  
2019 사회복지법인 예방원로복지원 이사장

### ▶상훈

1989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대한민국 정부)  
1994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대한민국 정부)  
2011 제2회 김마리아상(뉴욕신학대학)  
2011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한국YWCA연합회)  
2018 제3회 김마리아상(여전도회전국연합회)

### 5월 월례아침기도회



5월 월례아침기도회가 5월 2일(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는 이현아 목사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정의의 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이현아 목사는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책임위원으로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월례아침기도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가 기후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말씀은 5쪽)

### 2023년 2분기 지역법인 승인신청 회원Y 온라인간담회 진행



연합회는 2023년 2분기 지역법인 승인을 신청한 13개 회원YWCA(광양, 군산, 남원, 부천, 속초, 안동, 원주, 익산, 체천, 파주, 춘천, 충주, 천안)를 대상으로 온라인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5월 3일~4일, 5월 10일~11일 총 4일 동안 ZOOM을 통해 진행됐으며, 연합회 지역법인승인지원TFT 위원들과 회원YWCA의 이사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원YWCA 법인이사회의 책무성과, 본부의 지역운동 및 법인운영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재구조화 실행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법인 설립을 신청한 13개의 회원YWCA는 5월 13일 연합회 정기 법인이사회에서 모두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다. 설립 승인을 받은 회원YWCA는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마치고 법인설립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2023 식품안전의날 기념 소비자 토크콘서트

식품안전의날 기념 소비자 토크 콘서트가 5월 12일(금) 오후 3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렸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는 연합회를 비롯한 12개 소협 회원단체 실무자들과 모니터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가 ‘국내외 소비기한 표시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선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냉장고 온도에 따른 식품보관 방법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토크쇼 패널로 식약처 담당자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소비기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은학의집 개관 23주년 기념 행사



YWCA 은학의집 개관 23주년 기념예배가 5월 15일(월) 오후 1시 30분 약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YWCA은학의집 은학홀에서 열렸다. 기념예배 인도는 YWCA복지사업단 이종임 이사장이 맡았다. 이은영 이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연합회 활동가들이 ‘은혜’ 특송 축하공연을 하면서 충만한 시간이 이어졌다. 은학의집은 개관 23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도울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이 ‘은혜’였음을 고백했다. YWCA 은학의집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학의집이 될 것을 다짐했다.

### 윤석열 정부 1년, 여성가족부 평가 토론회

연합회는 5월 16일(화)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여성가족부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합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김예지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과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 김난주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공개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지난 20년 여성가족부를 비교하고 향후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2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8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 영상은 한국YWCA연합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

2023 여성주의 연합예배 ‘감히, 사랑’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7주기를 기억하는 <2023 여성주의 연합예배>가 5월 16일(화) 오후 7시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연합회와 서울YWCA를 포함한 총 24개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감히, 사랑”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마련했다. 기념예배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한국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고 서로를 살려내길 바라는 고백과 몸짓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연합회 김나경 여성신학위원회 위원이 용서와 위로의 기도를 드렸고, 연합회 실무활동가들이 엘름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연합예배 “감히, 사랑”은 연합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

**‘바다를더이상더럽히지마! 5.16도쿄행동 및 한일시민단체 간담회’**  
5월 16일(화) 도쿄에서는 ‘바다를더이상더럽히지마! 시민회의와 ‘샤요나라 핵발전소 1000만인 액션’ 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



최하는 ‘바다를더이상더럽히지마! 5.16도쿄행동’이 진행됐다. ‘바다를더이상더럽히지마! 5.16도쿄행동’에는 한일YWCA를 비롯해 한국의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했다. 첫 집회는 도쿄전력 앞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한국 YWCA연합회 유에스터 간사가 연대발언으로 참여했다. 오후 12시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오후 2시에는 원내집회가 이어졌다. 원내집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저녁 6시 30분에는 도쿄 히비야음악당에서 야외집회가 열렸다. 야외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5.16도쿄행동에는 후쿠시마 어민들을 비롯해 후쿠시마의 양육자들, 환경단체, 평화운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와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은 일본 지구위의벗(FoE-Japan), 일본YWCA,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등의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신주쿠 요요기 시민축정소, 재가동저지전국네트워크, 제염토(방사성 오염토) 재활용 반대 시민모임을 만나 향후 연대 방향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5.19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강원NCC 삼척 기후정의기도회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강원NCC가 5월 19일(금) 오후 2시 삼척 중앙우체국 앞에서 기후정의기도회를 열었다. 삼척 우체국은 삼척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집회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강릉·동해·속초·원주YWCA를 비롯하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강원NCC, 대학생

기후행동, 살림 등 활동가와 시민들이 기후정의기도회에 함께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강릉YWCA 전배자 회장이 기후정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동해YWCA 김성자 부회장이 성명서 낭독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의 성원기 대표가 현장 발언을 했다. 강원NCC 전 회장이자 오봉교회를 담임하는 장석근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현장에 모인 예배자들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이 멈추고 기후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아울러 탈석탄법이 제정돼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찬양했다.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기후정의기도회는 분기별로 진행중이다.

제2차 Y-틴 중앙임원회 회의 및 모임



2023 Y-틴 제2차 중앙임원회가 5월 20일(토) 오전11시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중앙임원들은 회의를 통해 ‘2023 전국 지구의 날 기후행동 평가의 건’을 논의했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한강 여의나루로 이동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교제의 시간 동안 김여진 동부지역 회장과 홍정희 동부지역 총무가 레크리에이션을 맡았다. 김민선 전국협의회 회장은 책 ‘기후 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중앙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3 Y-틴 전국회원대회’의 세부 일정을 기획했다. 전국회원대회는 8월 15일~1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는 ‘기후위기, 사랑과 희망’이다.

5.20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연합회가 연대하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전국 행동의 날인 5월 20일(토)에 서울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고양, 부천, 익산YWCA 및 연합회와 대학청년YWCA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는 전국먹거리연대, 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어민회총연맹, 제주청소년기후행동, 오사카 평화인권센터 등 각계각층의 발언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의 정당발언도 있었다. 연합회 활동가들은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퍼포먼스로 ‘개똥벌레’를 개사한 노래를 맡아 불렀으며, 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과 종각을 지나 시청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오염수를 육상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2023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



2023 YWCA 신입실무활동가교육이 5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총 37명의 신입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첫째 날에는 한국의 YWCA 목적과 정체성, 중점 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는 ‘한국YWCA 목적과 정체성 기본이해’를 주제로 강연했고, 연합회 시민운동국 유에스터, 이한빛, 이은혜 활동가는 각각 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핵 기후 생명 운동, 성평등 운동, 청소년 운동 등을 공유했다. 최수산나 시민운동국 국장은 YWCA 평화·통일운동을 소개했다. 김혜정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원자력발전'을 주제로 탈핵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어갔다. 둘째 날에는 현장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신입활동가들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한 뒤 '제1597차 수요시위'에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 YWCA결의문 컨설팅이션



연합회는 5월 25일(목) 오후 9시 온라인 줌을 통해 YWCA결의문 컨설팅이션(YWCA Resolution Consultation)을 열었다. YWCA결의문 컨설팅이션은 2019 세계YWCA 결의문 이행 촉구와 2023 세계YWCA 결의문(안) 지지 요청 및 각 회원국 YWCA가 당면한 이슈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이션은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결의문 이행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원영희 연합회 회장의 환영사와 케이스 하든(Casey Harden) 세계YWCA 총무의 메시지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기호 한신대학교 교수가 '아시아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2019 세계YWCA 결의문 이행 촉구'에 대해 이야기했고, 뒤이어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이 '2023 세계YWCA 결의문(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후지와라 레이코 일본YWCA 활동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과 일본YWCA 활동'에 대해 소개했고, 연합회 유에스더 간사가 한국YWCA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YWCA 결의문'은 YWCA세계대회에서 전 세계 YWCA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4년에 한 번씩 결의된다.

### YWCA 온라인모금 진행 지원 실시

연합회는 도너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모금함을 개설할 회원YWCA를 모집하고, 지난 5월 25일(목)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온라인모금 개설 방법 안내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까지 전체 과정을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10개 회원YWCA가 참여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개 회원YWCA(고양YWCA, 동해YWCA, 사천



YWCA, 의정부YWCA, 전주YWCA)가 선정됐으며, 이 중 5월 25일(목) 의정부YWCA, 6월 2일(금) 고양YWCA가 각각 교육에 참여하였다. 연합회는 두 차례의 교육에서 온라인모금에 필요한 도너스 기능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회원YWCA가 제출한 모금 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모금 화면세팅 방법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는 이번 지원을 통해 회원YWCA가 온라인모금 방법을 습득하고, 정확한 모금 관리와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성공적인 온라인모금 사례를 구축하여 다른 회원YWCA에도 좋은 사례로써 공유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023 성평등X기후정책 아카데미



5월 19일(금), 26일(금) 양일 간 <2023 성평등X기후정책 아카데미>가 온라인(Zoom)에서 진행되었다. 본 아카데미는 한국YWCA가 전국중점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후운동을 성평등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성평등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를 배우는 것을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1강은 세계식량계획 케냐 국가사무소 이보메 기후적응 정책사무관이 "성평등, 그리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성반응적 기후정책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2강은 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이 "한국의 성평등한 기후정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하는 기후정책 방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강의는 향후 연합회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 연구원 워크숍



연합회가 기획재정부 지정으로 운영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 사업 담당자 워크숍이 6월 1일(목)~2일(금) 1박 2일 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연구원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담당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제교육 분야에서의 챗GPT 활용에 대한 세미나와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학습지도안과 교구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합회는 2018년부터 경기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경기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6월 월례아침기도회



6월 월례아침기도회가 6월 1일(목)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공동체 윤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백소영 교수(연합회 이사/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가 출애굽기 15장 21절과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통해 '여성의 시선에서 본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또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한국YWCA가 평화와 화해의 주제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특별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하였다. (말씀묵상 내용은 38쪽)

### 2023년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2023년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를 지난 6월 1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에는 확대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공유안건과 협의안건을 논의하였다. 공유안건으로는 현재 한국YWCA가 진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저지 활동'과 '정전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원YWCA 및 연합회 활동', '2022-2023 YWCA 정책평가와 2024-2025 정책 제안 방식과 일정을 공유', '2024년도 연합회 정기총회 공천 일정(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협의안건으로 '2024-2025년 연합회 법인이사(사무총장 대표 2명) 추천 협의의 건', '2023년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진행(안) 검토의 건', '퇴임 사무총장 전별금 기준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를 통해 YWCA운동정책과 운영정책에 대한 사무총장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서는 회원YWCA의 지속가능한 운동성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연합회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2023년 상반기 워크숍이 6월 8일(목)~9일(금)까지 곤지암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회원사 간 네트워킹 구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교육 관련 두 개의 세미나 및 관련 회의가 진행되었다.

유엔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주최



연합회는 2023년 6월 9일(금) 오후 4시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주최로 '유엔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수정 교수,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센터장, 법무법인 태평양 윤철형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연합회 박동순 국장, 회계법인 늘봄 박인선이사,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오영표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유산기부 문화 확산 제도개선 노력과 YWCA운동 강화를 위한 모금전략으로써 유엔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한 기부모금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故 주선에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故 주선에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가 6월 12일(월) 오후 2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임원단,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실무활동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주선에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스겔 선교회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고전 4장 14-16절 말씀을 통해 '기념만 하지 말고 본 받으라'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나누고, 최만자 전 위원(연합회)의 기도, 강교자 전 이사장(연합회), 이해순 회장(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이 추모사를 낭독하였다. 평생을 여성, 평화, 기독교 교육과 나눔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였던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46쪽)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한국YWCA가 공동대표로 함께 하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은 6월 13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발언으로 참석한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국 YWCA가 51개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 평화의 연대를 세계YWCA와 확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참여를 요청하며 300곳 평화행동, 7월 22일(토) 개최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7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20주년 기념식 참가



연합회는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구정혜 상임이사와 배정미 국장을 파견하였다. 참가자들은 6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연길한성호텔 3층에서 개최된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난 20여 년간 민들레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과 실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목포YWCA 등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18일에는 한국YWCA 평화통일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한라에서 백두까

지'의 일환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본회는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여성지도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변조선족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여성들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전70년 한반도여성평화를 논하다

한국YWCA는 6월 20일(화) 오후 정전 70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평화 위기 상황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돌아보는 여성평화포럼과 더불어 2015년 국내외 여성들의 DMZ 평화 걷기를 담은 영화 크로싱즈(Crossings)를 상영하였다. 오후 1시 30분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린 여성평화포럼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주제로 한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의 기



조 발제에 이어 윤보영 동국대 박사와 고유경 WILPF 컨설턴트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후 4시에는 연합회 건물 1층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하고, 이어진 이야기마당에서는 한국YWCA의 당시 활동을 되짚어보며 현 상황 속에서 평화의 길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9쪽)

YWCA 1922 장학금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 1. 1 ~ 2023. 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고이나 구정혜 권부남 김경혜 김덕정 김병찬/임정임 김삼미 김선숙 김예진 김은경 김형남 나신숙 류경화 류준지 박은숙 배윤례 백은미 서금순 신성균 신정원 신희자 신희정 안병미 안정희 오대근 오순숙 오초녀 윤정희 이강숙 이선엽 이성란 이숙현 이영순 이예린 이종임 이주영 이정란 장성영 정용아 정은숙 정은하 정지은 정현주 조영미 차경애 편옥순 하미용 하행여	2,410,000
단체	안동YWCA 한솔사무기기	180,000
기타	바자회 수입	133,000
합계		2,723,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3. 4. 1 ~ 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90명)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성호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척더르즈 톨립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연규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현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정현주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허만성 허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홍현정	2,590,000
기관 (1곳)	한양대여성교회	1,200,000
합계		3,790,000

후쿠시마오염수방류저지 YWCA모금

(2023.3.21 ~ 2023. 5.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덕순 김미숙 김미애 김은경 박동순 박명숙 박윤애 송록희 원영희 이영미 이상진 이예린 이은숙 이주영 이현주 이혜련 이희정 임행심 정서연 정현주 조은영 최만자 최수산나 함희경 홍미경 홍수진 홍현정	930,000
기타	이화대학교회, 춘천연세플러스비노기과	1,030,000
합계		1,960,000

YWCA 흥청망청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 1. 1 ~ 2023. 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김미경 김인호 김종희 김주영 김지영 나길선 배한솔 장승호 장형미 정석민 조영민 이재경	3,580,000
기타	(주)럭스나인, 김필레기념사업회	1,500,000
합계		5,080,000

## 경인·강원권역

### (사)강릉YWCA

최경선 간사

#### 강릉YWCA 제35회 회원증모발대식



4월 24일(월) (사)강릉YWCA 비전홀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이 개최되었다. 1부 순서에서는 2022년도 회원증모 결과보고와 2023년 증모목표 달성하기 위한 선서식을 가졌다. 2부 순서에서는 회원증모 목표를 달성한 이사들의 사례 나눔으로 회원증모를 잘하는 방법과 특별한 회원증모 사례 Q&A를 진행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회원의 회비가 어디에 쓰이길 원하는지에 대해 강릉YWCA 회원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싱크 톡(Think Talk)'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 동해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및 교육



4월 17일(월) 오후 2시 동해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및 교육이 동해YWCA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이선우 과장님의 격려사에 이어 장재소 주무관의 동해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 동해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며,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환경을 정화시켜 건전한 성장환경을 전개함으로 관련기관과 민간 및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산·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 단속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올해도 동해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동해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사)서울YWCA는 5월 20일(토) '2023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를 남산 백범광장에서 개최했다. '건강한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걷기축제는 팬데믹 위기를 넘어 4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됐다. 남산순환로 7km를 걷는 걷기마당 외에도 여러 체험 부스와 기념품 증정, 행운권 추첨 등의 어울림마당이 함께 펼쳐졌다. 특별히 제로 웨이스트 부스에서는 쓰지 않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가져오면 친환경 주방비누로 바꿔 주는 '장바구니 모아모아'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 (사)속초YWCA

김다미 간사

#### 사단법인 속초YWCA 창립총회



5월 25일(목) 오후 7시 속초YWCA 강당에서 1986년 창립 이래 올해로 37년의 역사를 이어온 속초YWCA의 사단법인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사)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임시의장으로 박연희 회장이 선출되어 총회를 진행하였다. 총회 안건으로 설립취지문 채택 및 정관(안) 승인 등이 상정되었고,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됐다. 회장 직에는 박연희 회장이 선출되었고, 13명의 법인 이사 또한 선출됐다. 김지영 변호사는 감사로 선출됐다. 속초YWCA는 기독교시민운동 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과 평화가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 사단법인 원주YWCA 창립총회



5월 17일(수) 원주YWCA 대강당에서 (사)원주YWCA 창립총회 기념식이 열렸다. 이수복 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정영옥 이사의 기도, 원주시립합창단의 특송으로 꾸며졌다. 이어 최현영 목사(원주제일감리교회)의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2부 기념식은 이수복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사)한국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격려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였다. 이후 이수복 회장의 내빈 소개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원주YWCA의 앞으로의 비전과 평화의 다짐을 전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원주YWCA의 모든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 연합회 임원들, 이사들, 사무총장과 회원들 그리고 역대 회장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 (사)인천YWCA

서에스더 간사

#### 2023년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개장



인천시민들의 자원 절약과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2023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개장식이 4월 22일(토)에 열렸다. 2023년 한 해 동안 열리는 나눔장터에서는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 판매한 수익금 중 일부(10%)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이렇게 모인 기금은 연말에 지역 내 이웃에게 후원금 및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시작한 나눔장터는 현재까지 인천 문화예술회관 광장 등에서 138회 진행되었고 총 96,608,020원의 기부금이 221명의 이웃에게 전액 후원금 및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 새아나바다바자회



5월 18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춘천YWCA에서는 오랜만에 새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바자회에는 춘천YWCA의 이사들, 본부 직원 및 부속시설(YWCA여성인력개발센터, YWCA어린이집) 직원과 회원들이 참여하여 춘천YWCA 홍보 및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전시, 미사용 물품 나눔, 중고물품 판매, 다양한 체험코너(프로폴리스향균비누, 모기벌레퇴치제, 삼베수세미뜨기, 면수순건만들기), EM발효액 무료 배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시간이 되었다.

## 경기권역

###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다른 삶을 상상하다! 여성이 주도하는 기후변화행동'



(사)고양YWCA는 고양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다른 삶을 상상하다! 여성이 주도하는 기후변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에서 에코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마을에서 풀뿌리운동가로 살아가기', '슬기로운 음식물쓰레기 제로생활',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실천활동으로 '지속가능한 패션파티 21% 파티'(사지말고 바꿔

입는 공유옷장), ‘남기지 않는 식탁캠페인’, ‘소비자본주의 대안인 희망의 경제-사회적 경제스터디를 통한 기후행동에서의 사회적 경제모델만들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긴급행동**



(사)광명YWCA는 4월 6일(목)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전국YWCA 긴급행동에 참여하였다. 당일 긴급행동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가 아닌 시민의 소리에 응답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안전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였다. 앞서 광명YWCA는 3월 22일(수) 광명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지역 86만 명의 주민의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 앞에서 올해 물의 날 주제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노온정수장과의 거리가 약 250m에 이전)에 대해 결사반대의 의지를 담아 시민들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하였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구직회원 동아리 모임**



(사)남양주YWCA는 5월 9일(화) 구직회원 자조모임인 ‘백합회’를 진행하였다. 이 모임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각자 제작하고 싶은 꽃 액자를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구직회원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업무로 지친 마음을 돌아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업무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액자를 제작해보며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수인교회 환경선교주일 대장들녘 순례**



6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각 교단에서 환경선교주일로 지정하고 있다. 부천YWCA는 환경선교주일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2023년 봄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인교회와 환경선교주일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부천의 대장들녘에는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장들녘 도시 개발로 인해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로 옮겨야 했고, 현재 약 2000마리의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이주된 상황이다. 부천YWCA와 예수인교회는 지난 4월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새로운 서식지를 모니터링 해보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서식지’라고 일컫기 어려울 정도로 서식지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천YWCA와 예수인교회는 부천시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송하고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지키는 대장들녘순례를 진행했다.

**(사)성남YWCA** 임은희 간사

**하천생태 교란식물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



5월 12일(금) 성남YWCA 교육실에서 ‘하천생태 교란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 (사)성남YWCA는 성남시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으로 성남시 내에 있는 하천(탄천, 여수천, 분당천, 이매천)의 생태교란식물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동네 하천에 활동가들이 3회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를 수집하였다. 본 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외래식물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2023 수원 Y-틴& 수원 대학청년Y 인준식**



(사)수원YWCA는 5월 20일(토) 온라인 메타버스에서 2023 수원Y-틴&수원대학청년Y 인준식을 열었다. 이날 인준식에는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는 개회 및 환영사, 2부는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했다. 1부 개회식에서 진행한 ‘Y랑 나라’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원Y에서 함께 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Y랑 나라’에 참여한 대학Y 정은채 청년은 (사)수원YWCA와의 10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Y에서 만난 인연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또한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DMZ를 넘어 북한까지’라는 평화 행진 퍼포먼스로 인준식을 마무리했다. (사)수원YWCA는 작년보다 청(소)년의 참여도가 증가한 만큼 학생들의 활동 의지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기후 행동 솜뭉치 만들기 대회’, ‘Y-틴&수원대학청년Y 연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사)안산YWCA 회원증모발대식**



5월 17일(수)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강당에서 (사)안산YWCA 회원증모발대식을 개최했다. 약 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1부는 개회예배, 2부는 회원증모 발대식 순으로 회원 참여형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강숙 회장의 YWCA 역사와 활동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해 교육 후에는 ‘QR코드 속에 숨겨진 YWCA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YWCA와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격적인 회원증모 워크숍인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산YWCA’를 통해 안산Y에 대한 다

양한 생각들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안산YWCA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방민영 간사

**가정폭력피해자 및 여성운동지원을 위한 하루차집**



5월 2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구스 카페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및 여성운동지원을 위한 하루차집이 열렸다. 코로나 시기로 4년 만에 열린 하루차집 행사는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의 이사, 위원, 본부, 부속기관 실무자, 강사, 돌봄 회원들의 봉사와 참여로 이루어졌다. 하루차집 행사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지 조사와 함께 본부에서는 기후환경 캠페인과 정전70년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오랜만에 열린 하루차집 행사로 평생회원, 후원회원들을 직접 뵈 수 있는 반가운 시간이 되었다.

**(사)의정부YWCA** 류채욱 간사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동\_with U(위드유) 발대식**



5월 30일(화) 오후 2시 (사)의정부YWCA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기념 ‘함께하는 행동’ 발대식을 가졌다. 1부는 발대식, 2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지역의 연대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저지’ 행동에 나섰다. 정진아 사무총장은 (사)의정부YWCA가 한국YWCA의 회원단체로 정체성과 운동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법인체로 지역성을 강화하여 보다 친근한 시민

운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신의 입장에서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함께 서는 단체가 되었다고 다짐했다. 의정부YWCA는 '함께하는 행동 withU(위드유)'라는 활동 브랜딩을 가지고 사소한 관심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가치 참여와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파주YWCA**

김래정 간사

**미취학 아동 전문 자원순환강사 양성교육 실시**



(사)파주YWCA는 6월 2일~6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파주YWCA 강당에서 시민 총 50명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 전문 자원순환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2023년도 파주시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전년에 진행된 환경강사 양성 교육의 심화과정이다. 파주YWCA는 교육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원리와 재활용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본 교수법 교육, 강의시연을 통해 환경강사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올 7월 파주 관내 어린이집 10곳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환경교육(환경아, 우리가 지켜줄게)'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시민들을 전문 강사들의 보조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사)하남YWCA**

김예진 간사

**(사)하남YWCA 창립총회**



4월 19일(수) (사)하남YWCA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개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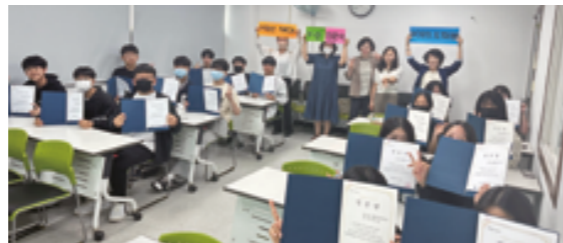
배는 신정원 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정현희 이사의 지도에 이어 하남YWCA 합창단의 특송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로 꾸러졌다. 이어 염순옥 목사(새롬교회)가 '감사로 일하는 YWCA'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 본격적인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하남YWCA는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투명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가지고 지역운동조직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사)논산YWCA Y-틴 인준식**



5월 13일(토) (사)논산YWCA 3층 강의실에서 2023년 Y-틴 인준식이 진행되었다. 1부 순서는 여는 예배 및 이해옥 시민사회운동위원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으며, 쉼뿔여중, 대건고 2개의 학교 Y-틴 동아리가 참여하여 YWCA영상 활동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에서는 Y-틴 선서와 목적문을 낭독하고 한 해 동안 Y-틴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와 인권 행동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을 결단하였으며, 전영자 (사)논산YWCA 회장의 인준장 수여식이 있었다. 3부는 기후정의탐험대 강의로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정의 보드게임과 햇빛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요리 솔라오븐 구운 감자를 맛보는 체험을 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창립 77주년 감사예배 및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

(사)대전YWCA는 4월 12일(수) 오전 11시 4층 대강당에서 이사, 위원, 회원 등 100여명과 함께 창립 77주년 감사예배 및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기



정 서기이사의 인도, 박하현 이사의 대표기도, 대전YWCA합창단의 '축복의 사랑' 특송으로 (사)대전YWCA의 77주년을 축하하였다.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은 YWCA목적문 낭독 후 여성과 청소년, 회원, 나눔 운동 등 7개의 모듬을 운영하여 회원증모에 대한 뜻을 나누고, 함께 힘써 나아가기를 독려함으로 회원증모운동에 적극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사)세종YWCA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사)세종YWCA는 5월 23일(화) 오후 2시 세종YWCA 교육장과 1층 주차장에서 세종YWCA 이사, 위원, 회원 등 50여 명과 함께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참가자들은 7개의 조로 나뉘어 YWCA 비전만들기 활동 등을 펼쳤다. 회원증모운동은 지역사회에 YWCA 홍보와 YWCA운동에 필요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YWCA운동에 좋은 협력자 발굴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사)제천YWCA 창립총회**



(사)제천YWCA는 5월 18일(목) 오후 6시 유유예식장 연회장에서

서 회원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사)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제16, 17대 회장을 역임한 이영순 임시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숙희 초대회장 및 12명의 임원이 선출되었다. 1986년 12월에 창립한 제천YWCA는 지역사회의 기독교여성을 중심으로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목적아래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조직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대응운동, 양성평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평화운동 등 YWCA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운동 조직으로 성장해 가기를 한 마음으로 다짐했다.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천안YWCA 2023 사랑나눔 봄바자회**



천안YWCA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 사랑나눔 봄바자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천안YWCA 부속시설 등 목적사업 운영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4대 정책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물품과 직접 만든 음식들을 판매하는 시간과 더불어 셀라 오카리나 앙상블의 연주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청주YWCA**

이드림 간사

**지구의 날, '손발 맞춰 탈핵세상으로 GO!'**



4월 22일(토) (사)청주YWCA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청주성안길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청주YWCA는 '손 발 맞

취 탈핵세상으로 GO! 라는 탈핵 게임을 직접 기획하여 청주 시민들이 남녀노소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의 심각성을 쉽고 재미있게 인식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후위기 영역에 대해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청주YWCA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손발 맞추며 탈핵세상으로 나아가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충주YWCA** 김성화 간사  
**생명나무생명꿈동산 10주년 타임캡슐 개봉식**



(사)충주YWCA는 5월 13일(토) 충주세계무술박물관 다목적실에서 친환경 EM환경교육과 남한강에 EM발효액 및 흙공던지기교육 후, 탄금공원 일원에서 생명나무 생명꿈동산 10주년 타임캡슐 개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및 10년 전 생명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가족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충주YWCA는 10년 전 생명운동의 확산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나무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1가구의 가족과 함께 탄금공원 일원에 생명나무생명꿈동산 가족나무를 식재하고 10년 후 가족의 모습과 각자의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 매립을 진행한 바 있다. 충주YWCA는 가족 나무를 돌보고 매설했던 타임캡슐 개봉식을 통해 가족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및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충주 지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정의인 간사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사)거제YWCA는 5월 13일(토) 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연합하여 거제 씨월드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대회



를 가졌다. 이 대회는 13개 단체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재복과 방제마스크 착용, 피켓팅,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시 수산업에 기반을 하는 경남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의 생존과 생명은 물론 해양 생태계에도 피해를 끼치기에 반드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김해YWCA** 배정숙 부장

**2023년 가야문화축제 어린이동화구연대회 개최**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3년 가야문화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면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던 어린이동화구연대회도 3년 만에 열렸다. 개최되는 기간에 유행성 질환이 성행하여 개인별 심사로 진행하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유치부 15명, 초등부 25명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박서현(6세), 오은울(초등3년)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김해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가야문화축제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동화구연대회는 1995년부터 김해YWCA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공간이 친숙하고 신조어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통한 바른 언어습관과 도덕성, 예술적 감성, 그리고 자신감을 길러주는 대회이다. 김해YWCA는 앞으로도 건강한 어린이들이 자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김해시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며 지역민과 함께 할 계획이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사)대구YWCA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개최**  
(사)대구YWCA는 4월 21일(금) 오후 2시 삼성창조경제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자체, 교계, 시민사회, 한국YWCA 등 유관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부 기념예배(대구월배교회 이상관 목사),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열인양상을 남성총창단의 오픈링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격려사, 축사, 시상식, 100주년 비전 선언, 버추얼과이어 100인의 합창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YWCA 100년 동안 근대사를 이끌어 온 여성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끌어내어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이루는 활동에 정진하는 대구YWCA가 되길 소망한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사)마산YWCA가 함께한 2023 '마산길마켓'**



4월 22일(토)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주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창원NC파크 가족공원에서 진행된 '제40회 함께하는 시민 장터 마산길마켓'에 (사)마산YWCA가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자 회장, 김미정 부회장, 이효진 청소년 부위원장, Y-틴 회원이 천연 향수와 미스트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선언 피켓팅과 함께 한반도 전쟁 종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사)마산YWCA는 지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며,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활동**



4월 8일(토)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부산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고리2호기 영구정지선포식이 있었다. 이날은 부산지역에서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고리2호기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날이다. 그러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심의하는 등 계속운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의 결과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고리2호기는 다시 가동되는 상황이 된다. 이에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40년 동안 설렘없이 돌아간 고리2호기가 멈추고 안전한 도시 부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의지를 모았다.

**(사)사천YWCA** 송주은 간사

**(사)사천YWCA 와룡 청소년 콘테스트**



4월 29일(토) 사천와룡문화제 지역축제의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댄스, 가요, 노래, 악기 등으로 청소년의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지역축제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사천YWCA 와룡 청소년 콘테스트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축제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여가 문화 형성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성취감과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전개하는 청소년 경연대회이다. 이날 행사에는 와룡부문과 기상부문으로 하여 총 9팀이 시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보컬밴드와 댄스부문에 참여자가 많은 해였다.

**(사)안동YWCA** 남수정 부장

**안동시 가족센터와 협약식**



5월 17일(수) 안동YWCA와 안동시가족센터는 2023년 사업진행을 위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안동YWCA는 가족센터의 한국어 수강생인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교실, 자원순환 생활 속 바른 실천, 소비자교육, 양성평등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YWCA는 매년 가족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의 요청이 있을시 수업에 해당하는 강사를 파견하여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지역에서 바르게 자리잡고 한국생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사)양산YWCA 이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양산YWCA는 5월 9일(화), 이사·위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천진 목사님께서 'YWCA 미래를 위한 논제를 통한 리더십 및 지도자 역량강화'란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하였다. 1부 개최예배에서 박해숙 회장의 인도와 이수진 이사님의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진 후, 2부 순서로 워크숍에서 양산YWCA 목적에 맞는 중점 운동 실현과 자원활동가의 리더십 향상 및 지도력 강화 강의를 통해 이사·위원들이 자원활동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이사, 위원들이 지도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양산YWCA가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나아가갈 방향과 비전을 재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2023 (사)울산YWCA 평생회원의 날 및 비전2032 선포**  
4월 18일(화) 울산과학대학교 청운국제관 2층 대강당에서 (사)



울산YWCA가 평생회원이 모인 가운데 2023 평생회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사)울산YWCA 41주년을 맞이하며 50년, 100년을 향한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선포하는 자리로서, 공평과 올바름을 위해 운동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김덕순 (사)울산YWCA 회장은 울산YWCA가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여 회원이 주체로서 지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전하였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4월 7일(금) (사)진주YWCA는 부활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부활란 나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부활란 나눔은 진주시청, 진주소방서, (주)GSE, (주)LH 등 지역 관공서와 기업을 비롯한 40여 곳의 기관에 전달하였다. 실무활동가들이 이른 아침부터 900여 개의 계란을 직접 삶아 음료와 함께 바구니에 담아 부활란 꾸러미를 준비하고, 자원활동가와 진주YWCA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실무활동가가 조를 나누어 지역 구역별로 부활란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특별히 진주YWCA어린이집 원아들은 회관 인근의 소방서와 경찰서 등을 직접 찾아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지역을 위한 소방관, 경찰관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활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사)진주YWCA를 알리며 여러 기관과 회원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이어가는 발판이 되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지구의 날 맞이 대시민 기후위기비상대응활동 캠페인**



(사)진해YWCA는 4월 21일(금)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창원 용지호수 공원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기후위기 시계 제막식'에 참여했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의 기온이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으로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기후행동 실천까지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창원특례시에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된 것이다. 당일 진해YWCA에서는 지난 1년간 <아금바리 리폼교실 및 자원순환>을 통해 헌옷으로 만든 생활소품들을 전시하고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과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유익한 미생물인 EM 사용하기 등을 알려 시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창원특례시 의회 김이근 의장 간담회**



(사)창원YWCA는 창원YWCA 시민운동국의 중점운동인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5월 2일(화) 창원특례시 의정실에서 김이근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운동국 위원장(신옥희 이사)은 '여성들이 생활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자 함'이 의정 모니터링의 주된 목적임을 전달했다. 김이근 의장은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건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성장 및 정착을 위하여 의정 활동 파트너로 나아가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창원YWCA는 여성의 시각으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여 정책 최고 의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더 공백을 막아내고 창원 지역의 성평등한 정치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환경·경제분야 시민사회강사 양성**



(사)통영YWCA는 4월 24일(월)부터 환경·경제분야 시민사회 양성과정을 개최하였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결혼 후 육아와 가족 돌봄의 이유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현실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시간제 근로의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이에 (사)통영YWCA는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재취업의 기회로 '마을학교 및 시민사회교육 강사양성과정'이라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고자 한다. 본 교육과정은 기본소양교육 16시간, 전문가 교육 76시간으로 7월 19일(수)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사)포항YWCA** 김민경 간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사)포항YWCA는 4월 18일(화)부터 5월 23일(화)까지 9회에 걸쳐 포스코 '사랑의 공부방' 학습지원 봉사단과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9개소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진로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진로체험활동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여 올바른 진로 선택의 좋은 기회를 주고, 포스코 봉사자들과 아동·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활동인 파티쉐, 아로마테라피스트, 3D펜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와 탐색의 시간을 가

짐으로써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목표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라·제주권역

###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 사단법인 광양YWCA 창립총회



5월 17일(수) 광양YWCA 3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사)광양YWCA 윤지영 발기인 대표는 초대회장님부터 광양YWCA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해주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다.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광양YWCA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광양 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향상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으며, 이번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의 책임 있는 시민운동공동체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자 한다.

### (사)광주YWCA

오희경 국장

#### 제29회 오월 Y시민포럼 및 박용준 열사 청소년자립지원금 전달식



광주YWCA는 5월 24일(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이하여 '제29회 오월 Y시민포럼 및 박용준 열사 청소년자립지원금 전달식'을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1부 행사는故 박용준 열사 추모예배에 이어 청소년자립지원금 전달식은 박용준 열사의 숭고한 정신과

그 뜻을 기념·계승하고자 육아시설 출신 5명의 청소년에게 박용준 열사 청소년자립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부 '5·18과 기록'의 시민포럼에서는 2011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의 등재 과정과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들을 접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 (사)군산YWCA

황수미 팀장

#### 사단법인 군산YWCA 창립총회



5월 16일(화) 오후 3시 군산YWCA 5층 대강의실에서 '사단법인 군산YWCA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2019년 창립하여 군산의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지역의 빛이 되어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사)군산YWCA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더불어 회원들과 소통하여 지역과 더 가깝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더 나은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위해 나아가갈 것을 다짐한다.

###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 사단법인 남원YWCA 창립총회



5월 16일(화) 오전 11시 (사)남원YWCA는 발기인 및 회원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1991년 12월 19일에 창립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던 남원Y를 창립총회를 통하여 재정비하고 자치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사단법인

으로 창립하는 첫 해의 회장은 유정이 현 회장이 선임됐다. 남원YWCA는 앞으로도 임원, 실무자, 회원들과 함께 여성인권향상, 청소년활동 및 보호, 환경운동, 돌봄과 나눔,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 (사)목포YWCA 창립 76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사)목포YWCA에서는 4월 20일(목) 3층 강당에서 이사 및 실무자, 청소년리더십기금대상자, 회원들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 76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했다. 1부 창립예배에서는 (사)목포YWCA꿈나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특송과 용당장로교회 심해석 목사님의 '리브가의 역할'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며 이후 자원봉사로 헌신한 자원활동가 10년, 20년, 50년 이사 봉사상, 실무활동가 10년 직원 근속상 표창,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18명에게 청소년리더십 기금 수여, 중경회장-직전회장님들을 위한 감사의 꽃화분 전달, 생일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를 진행하며 창립을 축하하였다. 창립기념행사를 통해 목포YWCA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YWCA중점운동을 지역에서 전개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YWCA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 2023년 서귀포시평화아카데미 개강 및 제1강좌 개최



(사)서귀포YWCA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2023 평화아카데미' 개강 및 제1강좌가 5월 2일(화) 서귀포YWCA회관에서 도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강식은 고맹수 (사)서귀포YWCA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육기관 소개, 교육일정 및 오리엔테이션, 한반도평화종전캠페인으로 이뤄졌다. 제1강좌는 고성준 원장(제주통일미래연구원)이 [평화&제주평화] 핵위협에서 평화찾기를 주제로 전쟁과 평화의 인류 역사, 핵미사일의 위험,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며 비핵화와 확장적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찾기를 중점으로 강연했다. 평화아카데미는 5월부터 7월까지 강좌를 진행하며 총 6강좌와 평화현장탐방으로 운영된다.

###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 (사)순천YWCA Y-틴 인준식 및 신입생 환영회



(사)순천YWCA는 5월 13일(토) 학교 Y-틴을 대상으로 Y-틴 인준식 및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고 Y-틴 5개 학교를 인준하였다. 환영회는 목적문 낭독으로 시작되어 인준장 수여 및 2023년 활동 계획 등을 나누고,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Y-틴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2년 YWCA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 Y-틴에게 모범이 된 서부지역 Y-틴 회장 김예은 학생은 한국YWCA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순천YWCA Y-틴은 이번 인준식과 기후위기 캠페인을 통해 (사)순천YWCA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중점운동과 목적에 맞는 청소년이 될 것과 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 (사)여수YWCA 5월 청소년어울림마당 에코그린데이 진행

(사)여수YWCA는 5월 20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미평공원에서 청소년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에코그린데이를 진행하였다. 에코그린데이는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재활용·재사용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날로, (사)여수



YWCA에서는 Y-턴 회원과 대학Y 회원, 그 밖의 청소년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중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와 청소년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사)익산YWCA**

강지수 간사

**사단법인 익산YWCA 창립총회 개최**



(사)익산YWCA는 5월 18일(목)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공공성, 책무성, 자치성을 가진 익산 지역의 기독교 여성 시민운동단체로서 발돋움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오랜 숙의과정 끝에 익산YWCA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창립총회는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발기인 대표 이진주 익산YWCA 회장의 인사말과 정관심의, 임원 선출, 회장선출, 출연재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가제창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익산YWCA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과 섬김으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기독교 여성 시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회원들과 함께 생명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2023년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4월 9일(일)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다. (사)전주YWCA와 전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준비한 이번 행사는 10.29 이태원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



는 예수그리스도를 목상하며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특별히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159명의 합창단을 구성하여 이우진 교수(전주YWCA합창단)의 지휘로 세월호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인 '눈물기도'를 합창했다. 이후 애잔의 시간과 유가족들의 인사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하는 예배의 기쁨을 누렸다.

**(사)제주YWCA**

진애령 간사

**'실버인지관리지도사 양성과정' 개최**



(사)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5월 10일(수) (사)제주YWCA 3층 대강당에서 2023년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버인지관리지도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사)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이 주관하는 '실버인지관리지도사 양성과정'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20명이 참여하며, 기본 소양 및 가치관 교육 등의 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과 직무능력 향상훈련 및 일자리 개척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노인 인지활동 지도자로 활동함으로써 준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구직자 및 구인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상담 및 등록,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이 마무리되면 '산모·아이 돌보미 양성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YWCA

# 건강생활 실천하고 포인트 적립 받으세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이 개선된 정도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

**대상자**

- 예방형**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 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

**시범지역**

지역	예방형	관리형
서울	노원구	종량구
경기 인천	안산시, 부천시	인천 부평구, 남양주시, 고양일산(동구, 서구)
충청권	대전 대덕구, 충주시, 청양군, 부여군	대전 동구
전라권	광주 광산구, 완도군, 전주시, 완주군	광주 서구, 순천시
경상권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김해시,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 제주권	원주시, 제주시	원주시

※ 참여신청일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범지역 내에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예방형**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관리형** 케어플랜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포인트**

- 예방형** 참여승인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만점
- 관리형** 참여승인일로부터 1년간 최대 5~6만점  
※ 1포인트는 1원에 상응

**사용처**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신청방법**

- 온라인**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시범지역 관할 공단 지사 방문
- ※ 참여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 우편으로 별도 안내



모바일 앱 QR코드

